

국어 영역

제 1 교시

[1 ~ 3] 다음은 강연의 일부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안녕하세요. 강연을 맡은 ○○○입니다. 오늘은 영화 포스터의 디자인을 구성하는 글자, 이미지, 색에 대해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영화 포스터에서 글자는 서체와 기울기로 표현되는데요, 서체부터 살펴볼까요? (㉠ 자료 제시) 여기 역동적인 액션 장르의 포스터와 가족 이야기를 다룬 드라마 장르의 포스터가 있습니다. 액션 장르 포스터에 쓰인 고딕체는 굵은 직선으로 되어 있어 격렬한 액션 장르의 강인함을 부각합니다. 반면 드라마 장르 포스터에 쓰인 손 글씨체는 부드러운 곡선으로 되어 있어 드라마 장르의 감성적인 특징을 시각적으로 나타내지요. 또한 액션 장르 포스터의 글자가 15도 정도 기울어져 있는 게 보이실 텐데요, 일반적으로 글자를 기울여 쓰면 역동성을 표현할 수 있어 박력 있는 내용의 활극인 액션 장르에서는 포스터의 글자를 기울여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음으로 이미지를 살펴봅시다. 영화 포스터에서 이미지는 사진과 그림으로 표현되는데요, 사진을 활용하면 대상을 사실적으로 표현할 수 있고 그림을 활용하면 대상을 인상적으로 강조할 수 있습니다. (㉡ 자료 제시) 여기 두 포스터를 보시죠. 코미디 장르에서는 인물의 얼굴은 사진으로, 몸은 그림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이때 그림으로 대상의 몸을 크게 그려 과장되게 표현한 것은 웃음을 자아내는 코미디 장르의 특징을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지요. 반면 액션 장르에서는 인물이 뛰고 있는 모습의 사진을 활용해 긴박한 상황에 처한 인물을 사실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색은 영화 포스터의 전체적인 분위기를 좌우하는 요소입니다. (㉢ 자료 제시) 왼쪽에 제시된 공포 장르에서는 검은색과 선명한 빨간색이 대비를 이뤄 영화의 섬뜩한 분위기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 오른쪽에 제시된 드라마 장르에서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들이 어우러져 잔잔한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어요.

혹시 궁금한 점이 있다면 질문해 주세요. (청중의 질문을 듣고) 공포 장르 포스터의 디자인 요소에 대해 더 알고 싶으신가 보군요. 공포 장르의 영화 포스터는 보는 사람들이 공포감을 느낄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글자의 서체는 불안감을 느낄 수 있도록 획의 끝이 뾰족한 명조체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어떤 서체라도 제목의 글자 끝에 날카로운 장식을 더하면 긴장감을 극대화할 수 있어요. 또한 적막하고 정적인 느낌을 주기 위해 글자는 기울여 쓰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한편 이미지는 영화 내용과 관련된 사진을 주로 사용하는데, 이때 핵심 소재를 클로즈업해 시선 집중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1. 위 강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자료의 출처를 언급하여 강연 내용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있다.
- ② 개인적인 일화를 소개하여 청중이 강연에 집중하도록 하고 있다.
- ③ 담화 표지를 사용하여 강연 내용에 대한 청중의 이해를 돕고 있다.
- ④ 강연 소재를 친숙한 대상에 빗대어 표현해 청중의 관심을 끌고 있다.
- ⑤ 최근의 경향을 분석하여 강연의 주제를 선정한 이유를 제시하고 있다.

2. 위 강연에서 강연자가 ㉠~㉢을 활용한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장르별로 포스터에 사용된 서체의 특징과 그에 따른 효과를 제시하고 있다.
- ② ㉠: 포스터에 사용된 글자의 기울기 수치를 밝히며 기울기를 활용하는 특정 장르의 특징을 언급하고 있다.
- ③ ㉡: 장르별로 포스터에 사용된 인물 사진의 특징과 그에 따라 서로 다르게 나타나는 인물의 정서를 언급하고 있다.
- ④ ㉡: 포스터에 사용된 그림의 표현 방법을 언급하고 그림을 활용한 특정 장르의 특징과 관련지어 설명하고 있다.
- ⑤ ㉢: 장르별로 포스터에 색이 사용된 방식과 그에 따라 연출되는 분위기를 언급하고 있다.

3. 위 강연을 바탕으로 영화 동아리 학생이 ㉠을 참고해 ㉡를 수정하려 할 때 제시한 의견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영화 정보	㉡ 영화 포스터 초안
1. 제목: 초대받지 않은 새 2. 장르: 공포 3. 내용: 어느 날 교외의 한적한 마을에 까마귀 한 마리가 날아오는데, 이 까마귀와 눈이 마주친 마을 사람들은 불행한 일을 겪게 된다.	

- ① 긴장감이 느껴지도록 제목의 글자 끝에 날카로운 장식을 더하는 게 좋겠어.
- ② 적막하고 정적인 느낌이 전달될 수 있도록 포스터의 글자들은 기울여 쓰는 게 좋겠어.
- ③ 불안감이 느껴지도록 포스터의 글자들은 획의 끝이 뾰족한 명조체를 사용하는 게 좋겠어.
- ④ 포스터에 시선이 집중되도록 현재 제시된 그림을 까마귀 눈이 클로즈업된 사진으로 교체하는 게 좋겠어.
- ⑤ 섬뜩한 분위기가 전달될 수 있도록 까마귀의 검은색과 대비되게 글자는 빨간색으로 표현하는 게 좋겠어.

[4 ~ 7] (가)는 [활동]에 따른 대화의 일부이고, (나)는 이를 참고하여 '학생 1'이 쓴 초고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활동] 「토끼전」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 성찰하는 글 작성하기

(가)

학생 1: 「토끼전」의 인물들에 대한 평가는 다양하다고 해. 그런데 나는 인물들에 대한 평가가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지 잘 모르겠어서, 이 주제로 이야기 나눠 보고 싶어.

학생 2: 그럼 나부터 할게. 나는 용왕의 명령을 따르고자 하는 충성스러운 자라는 긍정적이지만, 자신의 목숨을 위해 타인의 희생을 초래할 명령을 내린 용왕은 부정적이라고 생각해. 어떻게 자기 살겠다고 토끼의 간을 빼앗을 생각을 할 수 있지?

학생 3: 타인의 생명을 존중하지 않는 용왕의 이기적인 태도가 문제라는 거지? (학생 2의 반응을 보고, 고개를 끄덕이며) 나도 그렇게 생각했어. 반면에 토끼는 긍정적인 인물이라고 생각해. 위기에 처했는데도 삶을 포기하지 않고 기지를 발휘하잖아. 나도 토끼처럼 어떤 상황에서든 지혜를 발휘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

학생 1: 토끼는 헛된 욕심 때문에 위기에 빠진 게 아닐까? 또 부귀영화를 기대하며 삶의 터전을 버리고 쉽게 수궁으로 간 것을 보면 토끼의 경솔함도 긍정적으로 보긴 어려울 것 같아. 그에 비하면 변치 않는 충성심으로 볼 때, 자라는 신의 있는 인물 같아. 그래서 나는 자라가 배울 점이 많은 인물이라고 생각해.

학생 3: 음, 나는 오히려 자라를 부정적으로 봤어. 임무 수행을 위해 거짓말까지 한 자라의 행동은 윤리적으로 비판받아 마땅해.

학생 1: 그래도 그 거짓말은 용왕을 살려야 한다는 대의를 위한 선의의 거짓말로 봐야 해.

학생 3: 핑계 없는 무덤이 어딤어. 자라는 용왕을 위해 거짓말을 한 거라고 스스로를 합리화하겠지만, 피해는 토끼가 보고 있잖아. 결국 자라의 거짓말은 다른 이를 위기로 몰아넣는 나쁜 거짓말일 뿐이야. 더 나아가 자라의 맹목적인 충성심도 비판받아야 한다고 생각해. 명령이 잘못되었는데도 옳고 그름은 따져 보지 않고 임무를 완수할 방법만 궁리한 거잖아. 큰 죄를 저지르고도 상급자의 명령이니까 따랐을 뿐이라고 말하는 사람들과 다르지 않아.

학생 1: 듣고 보니 그렇네. 신의라는 가치는 삶을 살아가는 데 중요한 요소임은 분명한데, 자라가 좀 더 현명한 방식으로 신의를 지켰다면 더 좋았을 것 같아.

학생 2: 이야기를 나눠 보니 같은 인물에게서 각자 다른 의미를 찾아내는 점이 재미있다. 특히 인물들의 부정적인 측면에 주목해 보니 인물들 모두 옳고 그름에 대한 성찰이 부족했다는 것을 새롭게 알게 되었어.

학생 1: 그러게. 나도 이제 바람직한 삶을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도 조금은 알게 된 것 같아. 그리고 인물에 대해 내린 평가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할 것 같아. 이제 성찰하는 글을 쓰면 되는 거지? 글을 쓰기 위해 어제 **메모**를 해보았는데 이야기한 내용을 바탕으로 수정해야겠어.

학생 2: 오늘 한 이야기를 바탕으로 각자 쓰면 되겠다. (학생 3을 바라보며) 너 아까 공책에 필기하던데, 이야기 나눈 내용을 적은 거야?

학생 3: 음. 이야기한 내용을 요약해서 적고, 부족하지만 내 생

각도 조금 덧붙였어.

학생 2: ㉠ 나도 글을 쓰려면 정리 내용이 필요한데, 좀 빌려줘.

(나)

「토끼전」에는 여러 인물들이 등장하는데, 이들을 통해 바람직한 삶에 필요한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었다. 토끼가 보여 준 지혜, 자라가 지키고자 한 신의는 바람직한 삶을 위해 중요한 요소들이다. 그런데 친구들과의 대화를 통해 인물들의 부정적인 면을 확인하면서 그들에게 옳고 그름에 대한 성찰이 ㉡ **결렬**되어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용왕은 자신이 살기 위해 타인의 목숨을 희생시키는 명령을 내렸는데, 이는 타인의 목숨도 소중하다는 것을 깨닫는 성찰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 **그러나** 토끼는 부귀영화를 기대하며 신중하게 판단하지 못하고 수궁으로 갔는데, 이는 헛된 욕심과 경솔함을 스스로 경계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는 성찰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자라는 용왕에 대한 맹목적인 충성심으로 거짓말까지 했는데, 이는 무비판적인 태도와 거짓말이 초래하는 부정적인 결과를 깨닫는 성찰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바람직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성찰하는 태도가 중요하다. 이러한 태도가 중요함에도 나 역시 토끼전의 인물들처럼 옳고 그름에 대한 성찰을 하지 못하고 행동한 적이 있다. 지난번 교내 피구 대회에 반 대표로 참가했었는데 이기고 싶은 마음에 반칙을 하고도 말하지 않은 것이다. ㉣ **그리고** 내가 제일 좋아하는 종목은 축구이다. 나는 자라와 마찬가지로, 반 대표로서 이기는 목적만을 중시했는데 돌이켜보니 나의 행동이 스포츠 정신에 어긋났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만약 좀 더 일찍 성찰을 할 수 ㉤ **있었기** 때문에 나의 거짓된 행동으로 다른 반이 피해를 입지는 않았을 것이다.

나는 토끼전의 인물들을 통해 옳고 그름에 대한 성찰이 바람직한 삶을 위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고 ㉥ **나의** 삶을 되돌아볼 수 있었다. 행동하기에 앞서 옳고 그름에 대해 스스로 성찰하는 삶의 태도를 지녀야겠다.

4. [A]와 [B]에 나타난 '학생 3'의 말하기 방식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A]에서는 '학생 2'의 의견을 요약하여 재진술하고 있고, [B]에서는 '학생 1'의 의견을 논거를 들어 보강하고 있다.
 - ② [A]에서는 '학생 2'의 의견에 대한 자신의 이해가 맞는지 확인하고 있고, [B]에서는 '학생 1'의 의견에 대해 근거를 들어 반박하고 있다.
 - ③ [A]에서는 '학생 2'에게 추가적인 정보를 요청하고 있고, [B]에서는 '학생 1'의 의견을 뒷받침할 수 있는 추가적인 사례를 언급하고 있다.
 - ④ [A]에서는 '학생 2'의 의견에 비언어적 표현을 활용하며 공감하고 있고, [B]에서는 '학생 1'의 의견에 관용적인 표현을 활용하며 동의하고 있다.
 - ⑤ [A]에서는 '학생 2'의 의견에 동조한 뒤 화제를 전환하고 있고, [B]에서는 '학생 1'의 의견을 수용한 뒤 화제와 관련하여 현실적 한계를 지적하고 있다.

5. <보기>를 바탕으로 할 때, ㉠을 대신할 수 있는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 보기 〉
대화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공손한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즉 상대방에게 부담이 되는 표현은 최소화하고, 상대방에 대한 칭찬은 극대화하는 것이 좋다.

- ① 네가 공책을 다 보고 나서 시간이 괜찮다면 빌려줄 수 있을까? 너는 정말 필기를 꼼꼼하게 잘하는 것 같아.
- ② 네가 불편하지 않다면 필기를 볼 수 있을까? 내가 동아리 활동 때문에 바빠서 지금 말고는 볼 시간이 없거든.
- ③ 네가 지난 활동에서도 정리 자료를 빌려주었으니 이번에도 네가 빌려주는 것이 당연해. 그때 정말 도움이 됐어.
- ④ 네가 이야기를 하는 동시에 필기를 하다 보니 필기 내용은 부족할 거야. 그래도 조금은 도움이 될 수도 있으니 빌려줘.
- ⑤ 너는 평소에도 글쓰기를 참 잘하더라. 그런데 이번 글쓰기는 수험 평가에도 반영되니 너의 공책이 없으면 난 평가를 망칠 거야.

6. <보기>는 ‘학생 1’이 미리 작성한 **□□□□**이다. (가)를 바탕으로 <보기>를 수정하여 (나)를 작성했다고 할 때, ‘학생 1’이 떠올린 생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기 〉

1문단
○ 토끼의 부정적인 면을 언급하며 바람직한 삶을 위해 필요한 것을 보여 주는 긍정적인 인물은 자라임을 부각한다.

2문단
○ 토끼는 자신을 위협에 처하게 한 헛된 욕심과 경솔함이 갖는 문제에 대해 깨닫지 못했음을 지적한다.

3문단
○ 자라의 충성심은 오늘날의 관점에서 볼 때 의미가 있음을 부각한다.
○ 신의를 지키지 못해 친구와 다투었던 경험을 언급하면서 나의 행동을 반성한다.

4문단
○ 자라와 같은 삶을 살겠다는 다짐을 표현한다.

- ① 1문단: 토끼의 긍정적인 면을 언급한 ‘학생 3’의 말을 참고해, 자라와 마찬가지로 토끼도 바람직한 삶의 요소를 가지고 있다고 수정해야겠어.
- ② 2문단: 용왕에 대한 ‘학생 2’의 평가와 자라에 대한 ‘학생 3’의 평가를 활용해, 토끼의 행동과 마찬가지로 용왕의 명령과 자라의 거짓말 모두 성찰이 부족하다고 지적하는 내용으로 수정해야겠어.
- ③ 3문단: 자라의 충성심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학생 2’의 말을 참고해, 오늘날 성찰하는 삶의 태도보다 신의를 지키는 삶의 태도가 더 중요하다는 내용으로 수정해야겠어.
- ④ 3문단: 자라의 거짓말이 토끼에게 피해를 끼쳤다는 ‘학생 3’의 말에 착안해, 친구와 다투었던 경험이 아니라 자라가 저지른 부정적 행동과 유사한 행동을 한 나의 경험을 제시하는 것으로 수정해야겠어.
- ⑤ 4문단: 인물들은 공통적으로 성찰이 부족했다는 ‘학생 2’의 말에 착안해, 자라와 같은 삶을 살겠다는 다짐이 아니라 성찰하는 삶을 실천하고자 하는 다짐으로 수정해야겠어.

7. ㉠ ~ ㉣를 고쳐쓰기 위한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부적절한 어휘이므로 ‘결여되어’로 고친다.
- ② ㉡: 문장의 연결이 자연스럽지 못하므로 ‘그리고’로 고친다.
- ③ ㉢: 글의 통일성을 저해하므로 삭제한다.
- ④ ㉣: 문장의 호응 관계가 부적절하므로 ‘있었다면’으로 고친다.
- ⑤ ㉤: 서술어가 부사어를 요구하므로 ‘나의 삶에’로 고친다.

[8 ~ 10] (가)는 작문 상황이고, (나)는 (가)를 바탕으로 쓴 학생의 초고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가) 작문 상황
○ 글의 목적: 지역 사회의 문제 해결을 위해 학생회에 ‘트래시 태그 챌린지’ 봉사 활동을 건의한다.
○ 예상 독자: 우리 학교 학생회 학생들
○ 예상 독자에 대한 분석

- 우리 학교 학생회 학생들 중에는 트래시 태그 챌린지가 무엇인지 잘 모르는 학생들이 있다. …………… ㉠
- 트래시 태그 챌린지가 무엇인지 알고 있더라도 우리 △△지역에 필요한 이유를 궁금해 하는 경우가 있다. …………… ㉡
- 챌린지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가진 경우도 있다.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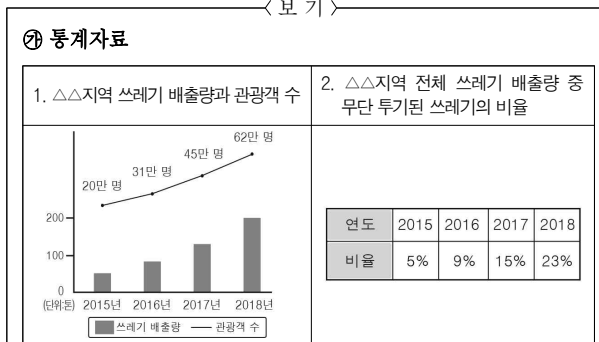
(나) 학생의 초고
안녕하세요. 1학년 □□□입니다. 학생회 여러분은 ‘트래시 태그 챌린지’에 대해 들어 보셨나요? 트래시 태그 챌린지는 공공장소 또는 길거리 등에 쌓인 쓰레기를 치우고 전후를 비교한 사진을 SNS에 해시태그와 함께 올려 공유하는 캠페인과 같은 활동입니다. 저는 우리 △△지역의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학생회가 중심이 되어 전교생이 참여하는 봉사 활동으로 트래시 태그 챌린지를 추진할 것을 건의합니다.

① 우리 지역은 최근 관광객이 급증하면서 그들이 버리고 간 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② 관광객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들까지도 쓰레기를 함부로 버려, 더러워진 골목은 보는 이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합니다. 또한 ③ 인력 부족으로 쓰레기 처리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 골목 구석구석마다 쓰레기 더미들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이는 관광객들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 모두가 자발적으로 쓰레기 문제에 관심을 기울여야 함을 보여줍니다. 제 건의가 받아들여진다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큰 보탬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학생들이 트래시 태그 챌린지에 참여하게 된다면, ④ 지역 주민 및 관광객들에게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지 말아야 한다는 의식을 고양할 수 있습니다. 또한 ⑤ 우리 동네 지리를 구석구석 잘 알고 있는 학생들을 중심으로 쓰레기를 치우게 된다면 환경미화원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물론 일부 기업들이 캠페인 활동으로 시작된 챌린지를 상업적으로 이용하여 챌린지 자체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학생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건의한 트래시 태그 챌린지는 학생회에서 주관하여 실시하는 봉사 활동이므로 상업적으로 이용될 가능성은 없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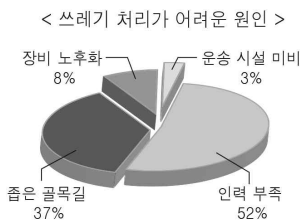
[A]

8. (가)의 ㉠ ~ ㉣을 고려하여 (나)를 작성했다고 할 때, 학생의 글에 활용된 글쓰기 전략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을 고려해, 1문단에서 트레이스 태그 챌린지의 개념을 설명한다.
 - ② ㉡을 고려해, 2문단에서 우리 지역에 쓰레기 문제가 심각함을 제시한다.
 - ③ ㉢을 고려해, 3문단에서 트레이스 태그 챌린지를 통해 기대할 수 있는 효과를 언급한다.
 - ④ ㉣을 고려해, 4문단에서 사례를 들어 상업적 목적의 챌린지가 지닌 의의를 제시한다.
 - ⑤ ㉣을 고려해, 4문단에서 챌린지를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견해가 있음을 밝히고 자신이 건의하는 트레이스 태그 챌린지에 대한 입장을 밝힌다.

9. <보기>는 학생이 (나)를 작성한 후 수집한 자료이다. 자료를 활용하여 (나)의 ㉤ ~ ㉧를 보완하고자 할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지역 거리 환경미화원 대상 설문 조사 결과



㉨ 전문가 인터뷰

캠페인의 성격을 지닌 챌린지를 통해 사람들은 자신을 돌아보고 사회 문제에 반응합니다. 지속적으로 챌린지에 노출된다면, 사람들은 특정 유형의 부정적 행동을 지양하거나 긍정적 행동을 실천하고자 하는 동기를 갖게 됩니다. 그러므로 SNS를 통한 챌린지의 확대는 사람들의 문제의식을 고양하여 사회 문제 해결에 큰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 ① ㉤: 문제 상황을 정확하게 드러내기 위해 ㉦-1을 활용하여 관광객 증가 추이와 쓰레기 배출량의 증가 추이를 수치로 추가해야겠군.
- ② ㉥: 문제의 심각성을 드러내기 위해 ㉦-1과 ㉦-2를 활용하여 쓰레기양 증가와 함께 무단 투기된 쓰레기도 증가하고 있다는 내용을 추가해야겠군.
- ③ ㉦: 상황 분석에 대해 설득력을 높이기 위해 ㉧를 활용하여 인력이 부족해 쓰레기 처리가 어렵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다는 내용을 추가해야겠군.

- ④ ㉤: 건의 내용에 타당성을 강화하기 위해 ㉧를 활용하여 SNS를 통한 챌린지가 지역 주민과 관광객들의 문제의식을 고양할 수 있다는 내용을 추가해야겠군.
- ⑤ ㉦: 건의 내용을 구체화하기 위해 ㉧와 ㉨를 활용하여 챌린지를 통한 사회적 관심의 증가로 좁은 골목길 쓰레기 처리의 어려움이 크다는 내용을 추가해야겠군.

10. [A]에 들어갈 내용을 <조건>에 따라 작성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조 건 >

- ‘챌린지’라는 용어를 사용할 것
- 직유법을 활용하여 건의한 내용의 수용을 촉구할 것

- ① 우리 학교 학생회는 희망의 등불과 같은 존재입니다. 학생회의 챌린지를 통해 우리 지역의 구석구석을 알릴 수 있습니다.
- ② 실천하는 학생회가 진정한 학생회입니다. 지저분한 우리 학교를 깨끗하게 만들기 위해 챌린지에 적극적으로 참여합니다.
- ③ 트레이스 태그 챌린지를 통해 세상을 깨끗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 지역이 예전의 아름다움을 되찾을 수 있도록 여러분의 소중한 마음을 모아주세요.
- ④ 챌린지는 우리말로 도전입니다. 우리 학교 학생들의 도전이 지역 문제를 해결하는 데 마중물과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 건의를 받아들여 주세요.
- ⑤ 혼자 하면 힘들지만 함께 하면 할 수 있습니다. 낙숫물이 바위를 뚫듯, 우리의 작은 노력을 모아 행복한 지역 사회를 만들어 가기 위한 발걸음에 동참해 주세요.

[11 ~ 12] 다음은 수업 장면의 일부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선생님: 음운 변동은 음운이 일정한 환경에 따라 다르게 발음되는 현상입니다. 음운의 변동에는 한 음운이 다른 음운으로 바뀌는 교체, 두 음운이 하나의 음운으로 줄어드는 축약, 두 음운 중에서 어느 하나가 없어지는 탈락, 두 음운 사이에 음운이 덧붙는 첨가 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덟’은 [여덜]로 발음되는데 접반침 중 ‘ㅁ’이 탈락되어 음운의 개수가 줄어든 것입니다. 또한 ‘숨이 불’은 [숨:니불]로 발음되는데 ‘ㄴ’이 첨가되어 음운의 개수가 늘어난 것입니다.

학생: 그런데 저는 ‘너는 나보다 키가 커서 좋겠다.’라는 문장의 ‘커서’에서 ‘-’가 탈락되었다는 것을 찾기가 어려웠어요. 음운 변동 결과가 표기에 반영되었기 때문이겠지요?

선생님: 맞아요. 그러면 음운 변동이 표기에 반영되는 경우와 표기에 반영되지 않는 경우를 용언의 활용을 예로 들어 알아봅시다. 용언 어간 끝의 모음 ‘ㅏ, ㅑ’가 ‘-아/-어’로 시작하는 어미와 결합할 때 모음 ‘ㅏ, ㅑ’가 탈락하는 경우, 용언 어간 끝의 모음 ‘-’가 ‘-아/-어’로 시작하는 어미와 결합하여 탈락하는 경우, 어간의 끝소리 ‘ㄹ’이 몇몇 어미 앞에서 탈락하는 경우는 음운 변동 결과를 표기에 반영합니다. 하지만 어간의 끝소리 ‘ㄴ, ㄹ’ 뒤에서 어미의 첫소리가 된소리로 교체되는 경우, 어간의 끝소리 ‘ㅎ’이 모음으로 시작하

는 어미 앞에서 탈락되는 경우는 음운 변동 결과를 표기에 반영하지 않습니다. 가령 앞에서 말한 ‘커서’의 경우는 음운 변동의 결과가 표기에 반영된 것이고, ‘낳은’을 ‘나은’으로 표기하지 않는 것은 음운 변동의 결과가 표기에 반영되지 않은 것입니다.

학생: 아, 그럼 음운 변동 결과가 ㉠ 표기에 반영된 경우와 ㉡ 표기에 반영되지 않은 경우를 찾아볼게요.

11. [A]를 바탕으로 음운 변동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사례	음운 변동	음운의 개수 변화
①	풀잎[풀립]	축약, 첨가	늘어남
②	흙화덕[흐콧덕]	교체, 탈락	줄어듦
③	맞춤옷[만추몯]	축약, 탈락	줄어듦
④	옛이야기[옌:니야기]	교체, 첨가	늘어남
⑤	달맞이꽃[달마지꼇]	교체, 축약	줄어듦

12. ㉠, ㉡에 해당하는 예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① ㉠: 관객이 많으니 미리 줄을 서라.
㉡: 돌아오는 기차표는 네 것만 줄어라.
- ② ㉠: 눈을 떠 보니 다음날 아침이었다.
㉡: 네가 집에 빨리 가서 아쉬웠다.
- ③ ㉠: 체육 시간에는 교실 불을 꺼 두자.
㉡: 오늘은 새 신발을 신고 학교에 가자.
- ④ ㉠: 지금 만는 김밥은 어머니께 드릴 점심이다.
㉡: 독서로 짧은 지식은 삶의 자양분이 될 것이다.
- ⑤ ㉠: 아버지 대신 빨래를 너는 모습이 보기 좋다.
㉡: 가을빛을 담고 있는 감나무 열매를 본다.

13. <보기>의 학습 과제를 수행한 결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학습 내용] 주어가 자기 힘으로 동작하는 것을 능동이라고 하고, 주어가 다른 주체에 의해 동작을 당하는 것을 피동이라고 한다. 피동 표현은 주로 어근에 접사 ‘-이-’, ‘-히-’, ‘-리-’, ‘-기-’, ‘-되다’ 등이 결합하여 실현된다.

[학습 과제] 다음의 어근 목록을 활용하여 피동문을 만드시오.

풀-	읽-	안-	깎-	이용
----	----	----	----	----

- ① 이번 시험 문제는 지난번보다 잘 풀렸다.
- ② 그의 글은 오직 나에게만 아름답게 읽혔다.
- ③ 친구는 버스에서 자기 짐까지 나에게 안겼다.
- ④ 날카로운 칼날에 무성하던 잔디가 모두 깎였다.
- ⑤ 우리 학교 운동장은 가끔 주차장으로도 이용되었다.

14. <보기>를 바탕으로 중세 국어의 특징을 탐구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홀른 조심 아니 흐샤 브를 **쁘괴** 흐야시닐 그 아버지 그 **쓰니뎨** 구짓고 北(북)녝 堀(굴)에 **브리스뎨** 발 가져오라 흐야닐 그 쓰니미 아버지 말 드르샤 北堀(북굴)로 **가시니 거름**마다 발 드르신 사해 다 蓮花(연화) | 나니 **자취**를 **조차**

- 「석보상절」 -

[현대어 풀이]
하루는 조심하지 아니하시어 불을 꺼지게 하시거늘, 그 아버지가 그 따님을 꾸짖고, 북녝 굴에 시켜서 불을 가져오라고 하거늘, 그 따님이 아버지의 말을 들으시어 북굴로 가시니, 걸음마다 발을 드신 땅에 다 연꽃이 나니, 자취를 좇아

- ① ‘쁘괴’를 보니 현대 국어와 달리 초성에 어두 자음군이 쓰였음을 알 수 있군.
- ② ‘쓰니뎨, 자취’를 보니 중세 국어에서도 앞말의 받침 유무에 따라 목적격 조사의 형태가 다르게 쓰였음을 알 수 있군.
- ③ ‘브리스뎨’를 보니 현대 국어와 달리 ‘△’과 ‘뎨’가 표기에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군.
- ④ ‘가시니’를 보니 중세 국어에서도 주체를 높이는 특수 어휘가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군.
- ⑤ ‘거름, 조차’를 보니 현대 국어와 달리 이어 적기를 하였음을 알 수 있군.

15. <보기 1>을 바탕으로 <보기 2>의 ㉠~㉥에 대해 탐구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보기 1>

[한글 맞춤법]
제41항 조사는 그 앞말에 붙여 쓴다.
제42항 의존 명사는 띄어 쓴다.
제43항 단위를 나타내는 명사는 띄어 쓴다.
다만, 순서를 나타내는 경우나 숫자와 어울리어 쓰이는 경우에는 붙여 쓸 수 있다.
제46항 단음절로 된 단어가 연이어 나타날 적에는 붙여 쓸 수 있다.

<보기 2>

- 꽃집에 꽃이 ㉠ 안개꽃 밖에 남아 있지 않았다.
- 나도 ㉡ 너만큼 달리기를 잘했으면 좋겠다.
- 남은 ㉢ 천 원짜리로 마땅히 살 것이 없었다.
- 나는 그 사람이 그리워 ㉣ 어찌할 줄 몰랐다.
- 기다리던 백신이 ㉤ 7 연구실에서 개발되었다.

- ① ㉠은 제41항을 적용해 ‘안개꽃밖에’로 정정해야겠군.
- ② ㉡은 제42항을 적용해 ‘너 만큼’으로 정정해야겠군.
- ③ ㉢은 제43항을 적용해 ‘천 원 짜리’로 정정해야겠군.
- ④ ㉣은 제43항을 적용해 ‘어찌할줄’로 정정해야겠군.
- ⑤ ㉤은 제46항을 적용해 ‘7연구실’로 정정해야겠군.

[16 ~ 19]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가)

행장이 거제에 진을 치고 이순신을 해치기 위해 온갖 계책을 내고 있었다. 하루는 행장이 부하 장수인 요시라에게 말하였다. “이순신을 결판낼 계책을 행하라.”

요시라가 명을 듣고 평소 교류가 있던 김응서를 찾아가 은근히 말하였다.

“우리 평행장은 본래 처음부터 화친하고자 했으나, 청정이 홀로 싸움을 주장하는 통에, 서로 틈이 생겨 이제는 청정을 죽이려 하고 있소이다. 오래지 않아 청정이 다시 바다에 나오리니, 내가 연락하거든 그 즉시 수군을 거느리고 나와 공격하면 청정을 죽일 수 있을 것이요. 그렇게 되면 조선의 원수도 같고 우리 장군의 한도 씻을 것이요.”

응서가 이 일을 조정에 고하니, 조정에서는 요시라의 말을 믿고 이순신에게 바다로 나아가 청정을 치게 하였다. 권을 또한 한산도에 이르러 순신에게 말하였다.

“그대는 마땅히 요시라의 약속을 믿고 기회를 잃지 않도록 하라.” 하지만 이순신은 이것이 도적의 간사한 계략인 줄 알고 출전을 주저하였다.

정유년 정월에 드디어 웅천에서 보고가 올라왔다. “이번 달 십오 일에 청정의 선봉 부대가 장문포에 이르렀다.” 뒤이어 요시라에게서도 연락이 왔다. “청정이 이미 물에 내렸다.”

이미 기회를 잃었다는 소식이었다. 조정에서는 이 소식을 듣고 그 허물을 순신에게 물었다.

[중략 부분 줄거리] 통제사로 임명된 원균은 칠천도에서 크게 패하고, 선조는 이순신을 다시 통제사에 임명한다.

순신이 군관 십여 명과 아전 수십 명을 데리고 **진주를 지나** 옥파에 이르니, 백성들이 길을 메우고 순신을 따르거늘, 순신의 군사가 이미 백여 명이 넘었다. 순천에 이르러 무기를 내어 가지고 **보성에** 가서 보니, 겨우 십여 척의 전선이 남아 있을 뿐이었다. 전라 수사 김억추를 불러, 전선을 수습하라 하고, 또 다른 장수에게는 서둘러 전선을 만들라 하고, 또한 장수들을 모아 엄하게 주의를 주어 말하였다.

“우리는 왕명을 받아왔으니 **마땅히 죽기를 각오**하고 나라의 은혜를 갚으리라.”

말씀에 의기가 깊게 배어 있으니, 장수들 중에 감동하지 않는 이가 없었다. 한편 조정에서는 이순신이 가진 배가 적어 도적을 막지 못할까 걱정하여, 차라리 육지에 올라 싸우라고 명하였다. 그러자 순신이 이렇게 임금께 아뢰어 청하였다.

임진년부터 오륙 년 동안 적이 감히 전라도와 충청도를 침범하지 못한 것은 우리 수군이 요해처를 지킨 결과입니다. 이제 신이 전선 육십 척을 거느리고 나아가 죽기를 각오하고 싸우면 가히 승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바다를 버리면 적이 서해 바다를 거쳐 한강으로 들어갈 것이니, 어찌 두렵지 아니하리이까. 그러하오나 신이 죽기 전에는 도적이 감히 업신여기지 못하리이다.

정유년 구월에 적선 수백 척이 바다를 덮어 오거늘, 순신이 **다급하게 명령**하길,

“십여 척 전선으로 맞아 싸우라.” 하는데, 거제 부사 안위가 가만히 도망하려 하는 것이었다. 순신이 이를 보고 맨 앞에서 외쳤다.

“안위 너가 어찌 군법에 죽으려 하느냐? 너가 이제 달아나면 살 수 있을 거라 생각하느냐!”

안위가 당황하여 큰 소리로 대답하길, “어찌 진격치 아니하리이까.”

하고는, 적진에 달려들어 싸우는데, 적선이 안위의 배를 둘러싸고 공격하니 안위가 거의 죽게 되었다. 이를 본 순신이 급히 구원하러 가는데, 적선 수백 척이 함께 나와 순신을 둘러싸고 어지러이 공격하니, 대포 소리가 바다에 진동하고 **창검이 사방을 둘러싸**는지라. 순신이 바다에서 곤경에 처한 것을 보고 장수들이 탄식하여 말하길,

“우리가 이곳에 있는 것은 오로지 통제사를 믿기 때문이다. 이제 이렇듯 위태로우니 어찌 가만히 있으리오.”

하고는, **전선을 휘둘러 적을 공격**하니라. 조선 수군이 죽음을 각오하고 싸우니, 적이 당황하여 잠깐 물러나게 되었다. 그러자 순신이 그 틈을 타 적을 많이 죽이니 결국 적이 패하여 달아나더라.

- 작자 미상, 『임진록』 -

(나)

S#51. 우수영. 이순신 집무실.

한 획... 한 획... 혼이 담기는 글씨. 숙연한 얼굴의 이순신이 붓을 들고 장계를 쓰고 있다.

이순신(NA): 전하... 지금 신에게는 아직 열두 척의 배가 남아 있습니다. 죽을힘을 다하여 싸우면 오히려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글씨를 쓰던 오른손이 **경련**으로 **파르르 떨**린다. 왼손으로 잡고 **다시 글씨를 이어** 가는 이순신.

이순신(NA): (힘주어) 신이 살아 있는 한 적들이... 감히 우리를 업신여기지 못할 것입니다.

장계 쓰기를 마치자 지그시 눈을 감고 호흡을 고르는 이순신. 이때, 밖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리더니 문이 벌럭 열린다. 안위를 비롯한 송여중, 김응함, 김억추, 송희립 등의 장수들이 몰려 들어온다.

[중략 부분 줄거리] 장수들이 출병을 앞두고 대책을 묻자, 이순신은 울돌목의 좁은 수로에서 적과 싸우려는 계획을 밝힌다.

안위: 장군! 소장 목숨을 걸고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이 싸움을 불가합니다!

상기되는 이순신의 얼굴. 다른 장수들도 일제히 무릎을 꿇고 외친다.

장수 일동: 불가합니다!

안위: 아무리 적들을 울돌목의 좁은 수로에서 막는다 한들 구선도 없는 마당에 결코 **승산이 없는 싸움**입니다! 훗날을 도모하십시오. 전선이 귀하고 군사 한 명이 귀한 때입니다!

이순신: (짐짓) 정녕 그리 생각하는 것이냐?

안위: (눈물을 흘리며) 뜻을 거두지 않으시려거든 소장의 목을 베어 주십시오. 차라리 장군의 칼에 죽겠습니다!

이순신: (의외로 **담담**하게) 그대들의 뜻이 정히 그러하다면....., 좋다, 군사들을 마당에 모으거라.

이순신의 의외의 태도에, 장수들의 안색이 다소나마 밝아진다.

S#52. 우수영. 마당. (밤).

바람에 흔들리는 햇불의 화광(火光)이 어지럽게 군사들을 비추고 있다. 두려움과 불안함, 그리고 뭔가 기대감들이 섞여 있는 긴장된 분위기다. 앞줄에 서 있는 안위 등 장수들의 표정에는 기대감이 크다. 이순신이 칼을 옆에 들고 군사들 앞으로 나온다.

이순신: (군사들을 쓱 훑고는) 김돌손과 황보만은 가져왔는가?

“예!” 하며 커다란 기름통을 들고 나타나는 김돌손, 황보만. 군사들의 이목이 집중된다.

이순신: 부어라!

김돌손, 황보만: (망설인다)

이순신: 붓지 않고 뭐 하느냐!

김돌손과 황보만이 동시에 “예!” 하고는 기름통을 들고 가서, 이순신의 등 뒤(군사들의 정면)에 위치한 우수영 본체에 기름을 붓기 시작한다. 놀라며 웅성거리는 군사들. 안위 등 장수들이 어안이 병병한 얼굴로 이순신을 쳐다본다. 군사들 뒤쪽, 나대용 옆에 서 있던 혜희가 두 눈을 지그시 감는다. 김돌손과 황보만이 기름을 다 붓자

이순신: 불을 놓아라!

김돌손: 예!

‘뭘 일이래!’ ‘안 돼!’ ‘장군님!’ ‘안 됩니까!’ ...소란스러운 소리가 터져 나온다. 안위의 표정이 싸늘하게 얼어붙는다. 김돌손이 본채 앞에 햇불을 들고 서서 이순신을 쳐다본다.

이순신: 놓아!

김돌손이 햇불을 던져 넣으면 순식간에 불길에 휩싸이는 본채. 설마설마하며 지켜보던 군사들의 낮빛이 파랗게 질린다. 할 말을 잃고 멍한 얼굴들이다. 불타는 본채를 뒤로하고 선 이순신이 입을 연다.

이순신: 아직도 살고자 하는 자가 있나니...... 통탄을 금치 못할 일이다! 우리는 죽음을 피할 수 없다!

탄식을 쏟아 내는 절망에 빠지는 군사들의 먼먼.

이순신: 우수사 배설이 그저 살고자 하는 욕심으로 구선에 불을 질렀다. 그래서 우리는 구선도 더 이상 없다! 싸움을 피하는 것이 사는 길이나! 욕지라고 무사할 듯싶으나!

이미 사색이 된 군사들이 고개를 떨군다.

이순신: 똑똑히 보고 있느냐! 나는 바다에서 죽고자 우수영을 불태운다! 살아도 더 이상 돌아올 곳이 없다! 우리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

- 전철홍·김한민, 「명량」 -

*NA(내레이션): 화면 밖에서 들리는 설명 형식의 대사.

16. (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요시라는 행장의 명을 수행하기 위해 김응서를 찾아갔다.
- ② 권율은 순신에게 요시라를 믿고 청정을 공격할 것을 지시했다.
- ③ 김억주는 순신으로부터 전선을 수습하라는 명을 받았다.
- ④ 순신은 바다를 버리면 적이 한강으로 들어갈 것이라고 생각했다.
- ⑤ 안위는 적을 피해 달아나다가 적선에 둘러싸여 위기에 처했다.

17. (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S#51에서 이순신이 숙연한 얼굴로 장계를 쓴 것은 S#52에서 장수들이 기대감을 키우는 것의 원인이 된다.
- ② S#51에서 안위가 이순신에게 무릎을 꿇은 것은 S#52에서 이순신의 망설임이 표출되는 것의 근거가 된다.
- ③ S#51에서 안위가 군사 한 명도 귀하다고 한 것은 S#52에서 군사들이 생각을 바꾸어 절망을 극복하는 것의 이유가 된다.
- ④ S#51에서 이순신이 군사들을 모으라 명령한 것은 S#52에서 군사들이 두려움으로 구선에 불을 지르는 것의 동기가 된다.
- ⑤ S#51에서 장수들이 싸움이 불가하다고 한 것은 S#52에서 이순신이 우수영 본채를 불태워 자신의 결심을 드러내는 것의 계기가 된다.

18. [A]와 [B]의 말하기 방식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A]는 역사적 사실을 제시하며 상대를 조롱하고 있고, [B]는 자신의 신분을 언급하며 상대를 질책하고 있다.
- ② [A]는 현실의 상황을 고려하며 자신의 주장을 유보하고 있고, [B]는 주어진 상황을 분석하며 상대의 회생을 강요하고 있다.
- ③ [A]는 과거의 경험을 회상하며 자신의 행위를 비판하고 있고, [B]는 미래의 상황을 가정하며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하고 있다.
- ④ [A]는 벌어질 상황을 언급하며 상대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있고, [B]는 현재의 상황을 언급하며 자신의 의지를 표현하고 있다.
- ⑤ [A]는 문제 상황을 언급하며 상대에게 해결 방법을 제시하고 있고, [B]는 문제가 해결된 현실을 언급하며 자신의 감정을 토로하고 있다.

19. <보기>를 바탕으로 (가)와 (나)를 비교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 보 기 —

서사 갈래에서는 서술자가 이야기 진행 과정을 요약하여 서술하거나 상황을 직접 묘사할 수 있고, 인물의 정서나 태도, 행동 등을 독자에게 직접 설명하기도 한다. 반면 극 갈래에서는 서술자가 없어 주로 대사를 활용하여 이야기의 진행 과정이 제시되는데, 연출을 위한 지시문을 통해 인물의 정서나 태도, 행동, 상황 등이 제시되기도 한다.

- ① (가)에서는 순신이 ‘진주를 지나’ ‘보성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서술자가 요약하여 서술하고 있고, (나)에서는 안위가 ‘승산이 없는 싸움’이라며 이순신을 설득하는 과정이 대사를 통해 제시되고 있다.
- ② (가)에서는 ‘마땅히 죽기를 각오’해야 한다는 장수들의 결심에 감동하는 순신의 정서를 서술자가 직접 설명하고 있고, (나)에서는 ‘본체에 기름을 붓기 시작’하자 당황하는 군사들의 정서가 지시문을 통해 제시되고 있다.
- ③ (가)에서는 전투를 ‘명령하’는 순신의 ‘다급’한 태도를 서술자가 직접 설명하고 있고, (나)에서는 장수들에게 대담을 하는 이순신의 ‘답답’한 태도가 지시문을 통해 제시되고 있다.
- ④ (가)에서는 ‘창검이 사방을 둘러싸’서 순신이 위기에 처한 상황을 서술자가 묘사하고 있고, (나)에서는 ‘화광이 어지럽게 군사들을 비추’는 긴장된 상황이 지시문을 통해 제시되고 있다.
- ⑤ (가)에서는 장수들이 ‘전선을 휘몰아 적을 공격하’는 행동을 서술자가 직접 설명하고 있고, (나)에서는 이순신이 ‘파르르 떨’리는 손의 ‘경련’에도 ‘다시 글씨를 이어 가’는 행동이 지시문을 통해 제시되고 있다.

[20 ~ 2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특정 산업에서 선발 기업이 후발 기업보다 기술력이나 마케팅 능력 면에서 더 뛰어나다는 점을 고려하면, 선발 기업이 산업의 주도권을 유지하는 것이 자연스러워 보인다. 그런데 오늘날의 국제 경제 환경에서는 후발 기업이 선발 기업을 따라잡아 산업의 주도권이 선발 기업에서 후발 기업으로 이동하는 현상이 종종 관찰된다. 이러한 현상을 설명하는 이론으로 추격 사이클 이론이 있다.

산업의 주도권 이동과 관련하여 기업에는 세 가지 기회의 창이 열릴 수 있다. 첫 번째는 새로운 기술의 등장이다. 기존에 없었던 새로운 기술이 등장하는 경우에 선발 기업과 후발 기업은 비교적 동등한 출발점에 서게 된다. 선발 기업이 자신들의 기존 기술을 최대한 활용하고 싶은 미련을 버리지 못해 새로운 기술의 도입을 주저할 때 후발 기업이 새로운 기술을 도입한다면 선발 기업보다 유리한 상황에 놓일 수 있다. 두 번째는 시장의 갑작스러운 변화이다. 경기 순환 또는 새로운 소비자층의 등장과 같은 변화가 여기에 속하는데, 이는 새로운 기술의 등장과 마찬가지로 반복해서 발생한다. 특히 불황기에 일부 선발 기업은 적자로 인해 자원을 방출하기도 하는데, 이때 후발 기업은 이런 자원을 적은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다. 또 불황기에는 기술 이전과 지식 획득이 쉬워지고 비용도 저렴해질 수 있는데, 이 역시 후발 기업에게 이득이 될 수 있다. 세 번째는 정부의 규제 혹은 직접적인 지원이다. 이를 통해 선발 기업과 후발 기업의 비대칭적인 환경이 조성될 때 선발 기업은 시장에서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 된다. 이때 비대칭적인 환경의 의미는 정부가 산업 진입 허가 또는 보조금 등을 통해 선발 기업을 자국 시장에서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 한다는 것이다. 이는 후발 기업이 시장에 진입하면서 생기는 불리함을 상쇄할 수 있는 계기로 작용한다.

이런 기회의 창과 관련해 산업의 주도권 이동은 '정상 사이클', '중도 실패 사이클', '슈퍼 사이클'이라는 세 가지 종류의 추격 사이클로 설명이 가능하다. 이 중 정상 사이클은 다음의 네 단계를 모두 경험하는 경우이다. 제1단계는 진입 단계이다. 국영 기업 혹은 정부의 지원을 받는 민간 기업이 후발 기업으로 나타날 때, 이들은 보조금 등의 이점으로 선발 기업에 비해 일정한 비용 우위를 누린다. 제2단계는 점진적 추격 단계이다. 이 단계에서 후발 기업들은 점차 투자를 위한 이윤을 확보해 시장 점유율을 높여 간다. 투자를 위한 이윤의 확보는 선발 기업보다 후발 기업에서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선발 기업의 주주들은 투자를 위한 이윤의 확보보다는 배당*을 더 선호하는 경향이 있지만 후발 기업의 주주들은 상대적으로 반대의 경향을 보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점진적 추격 단계에 도달한 후발 기업이 저부가 가치 제품 시장에서 고부가 가치 제품 시장으로 이동하지 못하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 못할 가능성이 높는데, 이 경우를 중도 실패 사이클이라 한다. 제3단계는 추월 단계이다. 이 단계에서 후발 기업은 확보된 이윤을 새로운 기술과 같은 기회에 신속하고 과감하게 투자하고 채택하여 산업 주도권에 갑작스럽고 큰 변화를 일으킨다. 그 결과 선발 기업은 후발 기업에 밀려 추락을 경험하게 된다. 제4단계는 추락 단계이다. 새롭게 리더가 된 후발 기업이 새 기술 및 소비 패턴의 변화를 농천다면 이 단계에서 다른 도전자에 밀려 추락하게 된다. 그런

데 제3단계에서 선발 기업을 추월한 후발 기업이 기술, 시장, 또는 규제의 변화 등에 민첩하게 대응하는 경우 산업의 주도권을 오랫동안 유지할 가능성이 높는데, 이 경우를 슈퍼 사이클이라고 한다.

결국 기업의 추격 사이클은 기회의 창들에 대한 기업의 전략적 선택에 따른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추격 사이클 이론은 특정 요소 결정론적이기보다는 ㉠ 외부적 요인과 주체적 요인을 모두 중시한다고 할 수 있다.

*배당: 주식을 보유한 사람들에게 그 지분에 따라 기업이 이윤을 분배하는 것.

20. 다음은 뒷글에 대한 한 줄 평이다. 주제를 고려할 때 밑줄 친 부분이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_____가 궁금한 분에게 추천합니다.

- ① 추격 사이클 이론에 대한 비판의 쟁점이 무엇인지
- ② 기업의 전략적 선택이 정부 정책에 미치는 영향이 무엇인지
- ③ 산업의 주도권 이동이 초래한 국제 경제의 위기는 무엇인지
- ④ 산업의 주도권 이동이 기업들 사이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 ⑤ 산업의 주도권을 가진 기업이 각종 경제 규제를 어떻게 극복하는지

21. 뒷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 ① 산업 진입 허가와 관련된 정부의 규제를 통해 선발 기업이 자국 시장에서 불리해질 수 있다.
- ② 새로운 기술은 선발 기업과 후발 기업이 비교적 동등한 출발점에서 경쟁을 할 수 있게 해 준다.
- ③ 시장의 갑작스러운 변화 중에는 기술 이전과 지식 획득이 쉬워지는 상황이 조성되는 경우가 있다.
- ④ 국영 기업은 후발 기업으로 나타날 때 선발 기업에 대한 정부의 보조금으로 비용 우위를 누리기 어렵다.
- ⑤ 경기 순환에 따른 불황기에는 선발 기업의 적자로 인해 방출되는 자원을 후발 기업이 활용하기 용이해진다.

22. 문맥상 ㉠과 바꾸어 쓰기에 가장 적절한 것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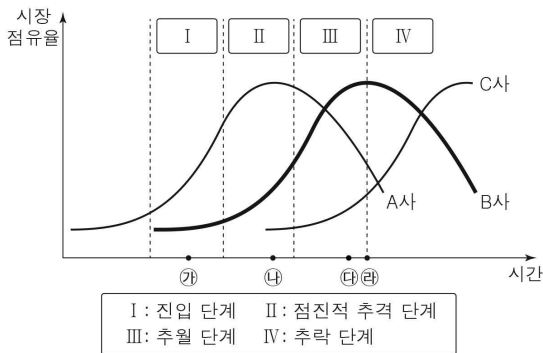
- ① 기업에 주어지는 기회와 이에 대한 기업의 전략적 선택을 모두 고려한다고 할 수 있다.
- ② 특정 산업 분야의 선발 기업과 이와 다른 분야의 선발 기업을 모두 참고한다고 할 수 있다.
- ③ 선발 기업의 기술력과 이와 동등한 후발 기업의 마케팅 능력을 모두 인정한다고 할 수 있다.
- ④ 새로운 기술과 이에 대해 선발 기업이 취해야 하는 수동적 태도를 모두 강조한다고 할 수 있다.
- ⑤ 산업의 주도권과 그것에 의해 정부가 기업에 부여하는 의무적 역할을 모두 중시한다고 할 수 있다.

※ 윗글과 다음을 참고하여 23번과 24번 두 물음에 답하시오.

[상황]

- A사는 B사보다 휴대전화 산업에 먼저 진입하여 산업을 선도하였다. 그런데 A사는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의 향상을 원하는 청년층의 요구에 민첩하게 대응할 수 있는 신기술을 채택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A사는 시장 점유율 하락을 겪게 되었고 이후에는 휴대전화 산업을 선도할 수 없게 되었다.
- B사는 개인이 창업한 기업으로 정부의 보조금으로 성장했고, 이 과정에서 얻은 이윤의 상당 부분을 주주들의 협조로 투자를 위해 확보하였다. 그 후 ㉠ 부가 가치가 높은 휴대전화를 생산하게 되었고,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향상시킨 신기술을 채택하여 휴대전화 산업을 선도하는 기업으로 올라섰다. 그러나 ㉡ 휴대전화 게임의 그래픽 기능 향상을 원하는 청소년층의 등장에 민첩하게 대응할 수 있는 신기술을 채택하지 않아서 매출의 감소를 경험하였다.
- C사는 B사보다 나중에 휴대전화 산업에 진입했다. 시장 점유율을 높여가던 C사는, B사와 달리 휴대전화 게임의 그래픽 기능 향상을 가능하게 한 신기술을 채택하여 시장 점유율을 대폭 증가시켰다.

[B사 중심의 추격 사이클]



*단, [상황]에 해당하는 내용만을 고려할 것.

23. 윗글을 바탕으로 [상황]과 [B사 중심의 추격 사이클]에 대해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에서 B사는 A사보다 시장 점유율이 낮지만 정부가 조성하는 비대칭적인 환경 때문에 비용 우위를 누렸다.
- ㉡에서보다 ㉢에서는 B사의 시장 점유율이 높는데, 이는 B사의 주주들이 배당보다는 투자를 위한 이윤 확보를 선호한 결과이다.
- ㉣부터의 A사 시장 점유율 변화 양상이 ㉤부터의 B사 시장 점유율 변화 양상과 유사한 것은, 반복되는 새로운 기회의 창에 대한 A사와 B사의 유사한 대응에서 비롯된 것이다.
- ㉣와 ㉤ 사이에서 A사와 B사의 시장 점유율 우위가 바뀌고 ㉥ 이후에 B사와 C사의 시장 점유율 우위가 바뀌는 데는, 각각의 경우 새로운 기술에 대한 B사의 선택 여부가 영향을 주었다.
- ㉤와 ㉥ 사이에서 A사의 시장 점유율과 달리 B사와 C사의 시장 점유율은 증가하기 때문에, A사는 새로운 도전자로서 부상하는 움직임을 보였다.

24. 윗글과 [상황]을 바탕으로 <보기>의 학습 활동을 수행한 학생의 반응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보기 >

[학습 활동] B사를 중심으로 ㉠와 ㉡에 의해 벌어질 수 있는 상황을 가정하여 각 상황에서 나타날 수 있는 추격 사이클의 종류를 파악해 보자. (단, B사에 대한 가정을 제외한 모든 조건은 동일하다.)

- ① 만약 B사가 ㉠를 생산하지 못했다면 정상 사이클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겠네요.
- ② 만약 B사가 ㉡를 생산하지 못했다면 슈퍼 사이클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겠네요.
- ③ B사가 ㉠를 생산했고, 만약 ㉡에 민첩하게 대응했다면 슈퍼 사이클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겠네요.
- ④ B사가 ㉠를 생산했고, 만약 ㉡에 민첩하게 대응했다면 중도 실패 사이클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겠네요.
- ⑤ 만약 B사가 ㉠를 생산하지 못했고, ㉡에 민첩하게 대응하지 못했다면 정상 사이클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겠네요.

[25 ~ 28]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아빠는 타판 가서 오지 않고 산비탈 외따른 집에 **엄매**와 나와 **단들이서** 누가 죽이는 듯이 무서운 **뽕** 집 뒤로는 어너 산골짜기에서 소를 잡아먹는 노나리꾼들이 도적놈들같이 쿵쿵거리며 **㉠** 다닌다

날기명석을 저간다는 닭보는 할미를 차 굴린다는 땅아래 고래 같은 기와집에는 언제나 니차떡에 청밀에 은금보화가 그득하다는 외발 가진 조마구* 뒷산 어너메도 조마구네 나라가 있어서 **오줌 누러** 껌는 **제뽕** 머리말의 문살에 대인 유리창으로 **조마구** 군병의 새까만 대가리 **새까만 눈알**이 들여다보는 때 나는 이불 속에 자즈러붙어 숨도 쉬지 못한다

또 이러한 밤 같은 때 **시집갈** 처녀 **막내고무**가 고개 너머 큰 집으로 치장감을 가지고 와서 **엄매**와 둘이 소기름에 쌍심지의 불을 밝히고 밤이 들도록 **바느질**을 하는 **뽕** 같은 때 나는 아룻목의 샷기를 들고 쇠든밤*을 내어 다람쥐처럼 물어먹고 은행여름을 인두불에 구워도 먹고 그러다는 이불 위에서 광대님을 뒤이고* 또 누워 굴면서 엄매에게 옷목에 두른 평풍의 새빨간 천두의 이야기를 듣기도 하고 고무더러는 맑는 날 밀리는 못난다는 뽕추라기를 잡아 달라고 조르기도 하고

내일같이 **명절날**인 **뽕**은 부엌에 제뽕하니 불이 밝고 솔뚜껑이 놀으며 **구수한 내음새** **곰곡**이 무르렁고 방안에서는 일가집 할머니가 와서 마을의 소문을 퍼며 조개송편에 달송편에 췌두기송편에 떡을 빚는 곁에서 나는 **팜소 팔소** **설탕** 든 **콩가루소**를 먹으며 설탕 든 콩가루소가 가장 맛있다고 생각한다

나는 얼마나 반죽을 주무르며 흰가루손이 되어 떡을 빚고 싶

은지 모른다

선달에 뉘일날이 들어서 뉘일날 **①**에 눈이 오면 이 밤엔 새하얀 **할미귀신**의 눈귀신도 뉘일눈*을 받노라 못 난다는 말을 **든든히** 너기며 엄매와 나는 양궁 우에 떡돌 우에 곱새담 우에 합지에 버치며 대냥푼을 놓고 치성이나 드리듯이 정한 마음으로 뉘일눈 약눈을 **②** 받는다

이 눈세기물을 뉘일물이라고 제주병에 **진상항아리**에 **채워**두고는 해를 목여가며 고뿔이 와도 배앓이를 해도 감피기를 얹어도 먹을 물이다

- 백석, 「고야(古夜)」 -

- *조마구: 옛 설화에 나오는 키가 매우 작다는 심술궂은 난쟁이를 의미함.
- *재밥: '재밥중'의 준말. '한밤중'의 평안 방언.
- *쇠든밤: 말라서 생기가 없어진 밤.
- *광대넙이를 뒤이고: 물구나무를 섰다 뒤집으며 노는 모습을 의미함.
- *뉘일눈: 한 해 동안 지은 농사 형편 등을 여러 신에게 제사 지내는 날인 납일에 내리는 눈. 이 눈을 받아 녹인 물은 약용으로 썼음.

(나)

겨울산에 가면
 밀등만 남은 채 눈을 맞는 나무들이 **③** 있다
 쌓인 눈을 손으로 헤쳐내면
 드러난 나이테가 나를 **④** 보고 있다
 들여다볼수록
 비범하게 생긴 넓은 이마와
 도타운 귀, 그 위로 오르는 외길이 보인다
 그새 쌓인 눈을 다시 쓸어내리면
 거무스레 습기에 지친 손등이 있고
 신열에 들뜬 입술 위로
 물처럼 맑아진 눈물이 흐른다
 잘릴 때 쏟은 톱밥가루는 지금도
 마른 껍질 속에 흩어져
 해산한 여인의 땀으로 맺혀 빛나고,
 그 옆으로는 아직 나이테도 생기지 않은
 꺾으면 문드러질 만큼 어린것들이
 뿌리박힌 곳에서 **⑤** 자라고 있다
 도끼로 찍히고
 베이고 눈 속에 묻히더라도
 고요히 남아서 기다리고 계신 어머니,
 눈을 맞으며 산에 들면
 처음부터 끝까지 나를 바라보는
나이테가 있다.

- 나희덕, 「겨울산에 가면」 -

25. (가)와 (나)의 표현상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는 (나)와 달리 방언을 사용하여 향토적 정감을 환기하고 있다.
- ② (가)는 (나)와 달리 명사형으로 시행을 종결하여 시상을 집약하고 있다.
- ③ (나)는 (가)와 달리 비유를 사용하여 시상을 구체화하고 있다.
- ④ (나)는 (가)와 달리 색채어를 활용하여 대상의 특징을 드러내고 있다.
- ⑤ (가)와 (나)는 모두 음성 상징어를 활용하여 시적 상황을 부각하고 있다.

26. <보기>를 바탕으로 (가)에 대해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기 >

이 작품은 '밤'에 대한 화자의 기억을 병렬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어린 시절의 화자에게 '밤'은 무섭고 두려운 생각에 겁이 났던 시간이자 전통적 풍속을 따르며 가족 공동체와 정겹게 함께한 풍요롭고 평온한 시간이었는데, 행위의 나열과 선명한 감각 이미지를 통해 구체적으로 형상화되는 기억은 유년 시절 고향에 대한 화자의 그리움을 짐작하게 한다.

- ① 1연의 **①**은 '외따른 집'에서 '엄매'와 '단둘이서' 지내며 무서움을 느꼈던 시간으로, 그 기억은 청각적 이미지를 통해 구체적으로 형상화되고 있군.
- ② 2연의 **①**은 '오줌 누러' 잠이 깨었는데 '조마구'의 '새까만 눈알'이 자신을 들여다본다고 생각해 두려움을 느꼈던 시간으로, 그 기억은 시각적 이미지를 통해 구체적으로 형상화되고 있군.
- ③ 3연의 **①**은 '엄매'와 '시집갈' '막내고무'가 '바느질'을 할 때 그 옆에서 놀면서 화자가 가족 공동체와 보낸 정겨운 시간으로, 그 기억은 행위의 나열을 통해 구체적으로 형상화되고 있군.
- ④ 4연의 **①**은 '명절날' '곰국'의 '구수한 내용새'가 나고 화자가 '설탕 든 콩가루 소를 먹'는 등 먹을거리로 풍요로운 시간으로, 그 기억은 후각적 이미지와 미각적 이미지를 통해 구체적으로 형상화되고 있군.
- ⑤ 5연의 **①**은 '할미귀신'을 '든든히' 여기고 '눈'을 받아 '진상항아리'에 '채워두'는 전통적 풍속을 따르던 평온한 시간으로, 그 기억은 행위의 나열을 통해 구체적으로 형상화되고 있군.

27. <보기>를 바탕으로 ㉠~㉣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기 >

서정 갈래의 현재 시제는 물리적 시간으로서의 현재가 아닌 가상적 현재를 의미하며 이를 통해 시적 효과를 유발한다. 즉, 과거 혹은 특정할 수 없는 어느 시점에서의 시적 대상과 상황에 대한 화자의 시적 체험을 현재 시제로 표현하게 되면, 독자는 화자의 주관적 인상과 인식, 그리고 감정과 행위에 집중하게 되고 그 상황이 마치 지금 여기에서 벌어지고 있는 듯한 생생함을 느끼게 된다.

- ① (가)의 ㉠은 소를 잡아먹는 노나리꾼이 다니는 상황이 마치 지금 여기에서 벌어지고 있는 듯한 느낌을 유발한다.
- ② (가)의 ㉡은 정한 마음으로 뉘일눈을 받는 화자의 행위와 주관적 감정에 집중하게 한다.
- ③ (나)의 ㉢은 밀등만 남아 눈을 맞고 있는 나무들에 대한 인상을 물리적 시간인 현재로 표현하고 있다.
- ④ (나)의 ㉣은 나이테가 자신을 보고 있다는 화자의 인식을 가상적 현재로 표현하고 있다.
- ⑤ (나)의 ㉣은 밀등 옆에 어린 나무가 자라고 있는 상황을 생생하게 느끼도록 하는 시적 효과를 얻고 있다.

28. (나)의 **나이트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자식을 향한 어머니의 모성을 떠올리게 하는 대상이다.
- ② 자식에게 어머니의 편안한 삶을 떠올리게 하는 계기이다.
- ③ 자식에 대한 어머니의 희생적 사랑을 단절시키는 소재이다.
- ④ 어머니를 위해 헌신하는 자식의 강인함을 의미하는 소재이다.
- ⑤ 성장한 자식을 떠나보낸 어머니의 무상감을 드러내는 대상이다.

[29 ~ 3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일상에서의 음식 조리 과정은 열전달에 관한 과학적 원리로 설명할 수 있다. 열전달은 열이 온도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이동하는 현상인데 조리 과정에서는 전도에 의한 열전달이 많이 일어난다. 전도란 물질을 이루는 입자들의 상호 작용을 통해 보다 활동적인 입자로부터 이웃의 덜 활동적인 입자로 열이 전달되는 현상이다. 이러한 전도는 온도 차이가 있는 경우에 일어나는데, 한 물질 내에서 발생하기도 하며 서로 다른 물질들이 접촉하는 경우에도 발생한다.

열전달 과정에서 단위 시간 동안 열이 전달되는 비율을 열전달률이라고 하는데 열전달률은 결국 열이 짧은 시간 동안 얼마나 많이 전달되는가를 나타내므로 음식의 조리에서 고려할 중요한 요소가 된다. 전도에 의한 열전달률은 온도 차이와 면적에 비례하고, 거리에 반비례한다. 즉, 전도가 일어나는 두 지점 사이의 온도 차이가 커질수록, 열이 전달되는 면적이 커질수록 열전달률은 높아지고, 전도가 일어나는 두 지점 사이의 거리가 멀어질수록 열전달률은 낮아진다. 이러한 현상을 수식으로 처음 정리한 사람이 푸리에이기 때문에 이를 ㉠ 푸리에의 열전도 법칙이라고 부른다. 그런데 실제로 실험을 해보면 한 물질 내에서 일어나는 전도의 경우에 다른 조건이 동일하더라도 물질의 종류가 다르면 열전달률이 다르게 나타난다. 이는 물질이 전도에 의해 열을 전달할 수 있는 능력의 척도, 즉 열전도도가 물질마다 다르기 때문이다. 따라서 푸리에의 열전도 법칙에 ㉡ **따르**면 다른 조건이 같더라도 열전도도가 높은 경우 열전달률도 높게 나타난다.

[A] 튀김의 조리 과정을 푸리에의 열전도 법칙으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식용유의 움직임은 고려하지 않는다면, 튀김의 조리 과정은 주로 식용유와 튀김 재료 간의 전도로 파악될 수 있다. 맛있는 튀김을 만들기 위해서는 냄비를 가열하여 식용유의 온도를 충분히 높여 식용유로부터 튀김 재료로의 열전달률을 높여야 한다. 그리고 튀김 재료를 식용유에 넣으면 재료 표면에 수많은 기포들이 형성된다. 이 기포들은 식용유에서 튀김 재료로의 높은 열전달률로 인해 순간적으로 많은 열이 전달되어 생겨난 것인데 재료 표면의 수분이 수증기로 변해 식용유 속에서 기포의 형태가 된 것이다. 이 기포들은 식용유 표면으로 올라가 공기 중으로 빠져나가고 이때 지글지글 소리가 난다.

이 수증기 기포들은 튀김을 맛있게 만드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수분이 수증기의 형태로 튀김 재료에서 빠져나감에 따라 재료 안쪽의 수분들은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 표면 쪽으로 이동

한다. 그 결과 지속적으로 재료의 수분은 기포로 변하고 이로 인해 재료는 수분량이 줄어들면서 바삭한 식감을 지니게 된다. 또한 튀김 재료 표면의 기포들은 재료와 식용유 사이에서 일종의 공기층과 같은 역할을 해 식용유가 재료로 흡수되는 것을 막아서 튀김을 덜 기름지게 한다. 그리고 재료 표면에 생성된 기포들을 거쳐 열전달이 일어나기 때문에 기포들은 재료 표면이 빨리 타 버리지 않게 하고 튀김 재료의 안쪽까지 열이 전달되어 재료가 골고루 잘 익게 한다.

29. 윗글을 이해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물질을 이루는 입자들의 상호 작용을 통해 전도가 일어난다.
- ② 음식의 조리 과정에서는 전도에 의한 열전달이 많이 일어난다.
- ③ 물질이 전도에 의해 열을 전달할 수 있는 능력은 물질마다 다르다.
- ④ 음식의 조리에서 단위 시간 동안 열이 전달되는 비율을 고려하는 것은 중요하다.
- ⑤ 열의 전도는 서로 다른 물질들이 접촉하는 경우에만 발생하며 한 물질 안에서는 발생하지 않는다.

30. <보기>는 윗글을 읽은 건축 동아리 학생들이 나눈 대화의 일부이다. ㉠을 활용한 의견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기 >

동아리 회장: 오늘은 에너지 효율이 높은 건물 설계에 대해 열의 전도를 중심으로 아이디어를 나눠 보자.

부원 1: 겨울철 열손실을 줄여야 하니까 지붕을 통한 열전달률을 낮추기 위해 건물의 지붕을 일반적인 지붕의 재료보다 열전도도가 낮은 재료를 사용하는 설계가 필요하다고 생각해.

부원 2: 일반적으로 벽보다 창문의 열전도도가 높으니 여름철 실내 냉방 효율을 높이고 싶다면 창문을 통한 열전달률을 낮추기 위해 건물 외벽에 설치된 창문의 면적을 줄이는 설계가 필요하다고 생각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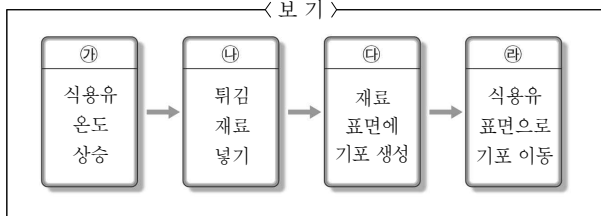
부원 3: 여름철 외부 온도의 영향을 최소화하고 건물 외벽을 통한 열전달률을 낮추기 위해 외벽은 일반적인 것보다 두껍게 설계하는 것이 필요해.

부원 4: 차가운 방바닥에 빠른 난방을 하려면 난방용 온수 배관에서 방바닥으로의 열전달률을 높여야 하니 난방용 온수 배관과 방바닥이 닿는 접촉 면적을 넓히도록 설계해야겠어.

부원 5: 여름철 현관문을 통한 실의 온도의 영향을 최소화하려면 현관문을 통한 열전달률을 낮춰야 하니 같은 두께라도 열전도도가 더 높은 재질의 현관문을 사용하는 것으로 설계해야겠어.

- ① 부원 1의 의견
- ② 부원 2의 의견
- ③ 부원 3의 의견
- ④ 부원 4의 의견
- ⑤ 부원 5의 의견

31. <보기>는 [A]의 과정을 도식화한 것이다. 윗글을 바탕으로 ㉠~㉤를 이해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① ㉠에서는 서로 다른 물질인 냄비와 식용유 사이에서 열전달이 일어나겠군.
- ② ㉡의 결과로 ㉢가 진행되는 것은 튀김 재료에 순간적으로 많은 열이 전달되었기 때문이겠군.
- ③ ㉢에서는 열이 전달됨에 따라 튀김 재료 표면의 수분이 튀김 재료 안쪽으로 이동하겠군.
- ④ ㉢에서 ㉣로의 과정이 반복되면 튀김 재료의 수분량이 점차 줄어들겠군.
- ⑤ ㉣에서는 수증기가 공기 중으로 빠져나가면서 지글지글 소리가 나겠군.

32. <보기>는 윗글을 읽은 학생의 반응이다. ㄱ~ㄷ에 들어갈 말로 적절한 것은?

< 보 기 >

맛있는 튀김을 만들기 위해서는 기포들의 역할이 중요해. 기포들이 (ㄱ)에서 공기층과 같은 역할을 해서 식용유가 재료로 흡수되는 것을 (ㄴ)하여 튀김을 덜 기름지게 해 줘. 또 식용유에서 튀김 재료로 열이 직접 (ㄷ)하여 재료 표면이 타지 않고 골고루 익게 해.

- | | ㄱ | ㄴ | ㄷ |
|---|---------------|----|----------|
| ① | 튀김 재료 내부 | 방해 | 전도되게 |
| ② | 튀김 재료 내부 | 촉진 | 전도되지 못하게 |
| ③ | 튀김 재료와 식용유 사이 | 방해 | 전도되지 못하게 |
| ④ | 튀김 재료와 식용유 사이 | 촉진 | 전도되게 |
| ⑤ | 튀김 재료와 식용유 사이 | 촉진 | 전도되지 못하게 |

33. ㉠와 문맥적 의미가 가장 유사한 것은?

- ① 우리는 해안선을 따라 올라갔다.
- ② 동생은 어머니를 따라 전통 시장에 갔다.
- ③ 학생들이 모두 선생님의 동작에 따라 춤을 쳤다.
- ④ 수출이 증가함에 따라 경제도 서서히 회복되어 갔다.
- ⑤ 그들은 자율적으로 정한 규칙에 따라 일을 진행했다.

[34 ~ 38]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인간은 지식 체계의 형성을 위해 개념을 필요로 하는데, 개념이란 여러 관념 속에서 공통 요소를 뽑아내어 종합해 얻어 낸 보편적인 관념을 말한다. 이러한 개념을 통해 체계와 기준을 머릿속에 먼저 정해 놓고 그것을 현실에 적용하는 개념주의적 태도를 지닌 근대 사상가들이 있었다. 하지만 들뢰즈는 이 세상에 동일한 것은 없다는 전제하에 세상을 개념으로만 파악하려는 태도를 비판하고 개별 대상의 다양성에 주목하는 ‘차이’의 철학을 제시했다.

일반적으로 차이란 서로 같지 않고 다르다는 의미로 쓰이지만 들뢰즈는 차이를 ‘개념적 차이’와 ‘차이 자체’로 구분하여 자신이 말하고자 하는 차이의 의미를 명확히 했다. 이때 개념적 차이란 개념적 종차*를 통해 파악될 수 있는, 어떤 대상과 다른 대상의 상대적 다름을 의미하며, 차이 자체란 개념으로 드러낼 수 없는 대상 자체의 절대적 다름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소금의 보편적 특성은 짠맛이나 흰색 등으로 볼 수 있는데 이러한 특성은 소금과 설탕의 맛을 비교하거나, 소금과 숲의 색깔을 비교함으로써 파악될 수 있다. 즉 소금과 다른 대상들과의 상대적인 비교를 통해 소금의 개념적 차이가 형성되는 것이다. 그런데 ㉠ 소금이라는 개념으로 동일하게 분류되는 각각의 입자들은 그 입자마다의 염도와 빛깔 등이 다를 수밖에 없다. 어떤 소금 입자들은 다른 소금 입자보다 조금 더 짠 수도 있고, 흰색이 조금 더 밝을 수도 있다. 이때 각 ㉠ 소금 입자가 가지는 염도, 빛깔의 고유한 정도 차이에 해당하는 특성이 바로 개별 소금 입자의 차이 자체인 것이다.

들뢰즈는 개념적 차이로는 대상만의 고유한 가치나 절대적 다름이 파악될 수 없다고 하였다. 왜냐하면 개념적 차이는 다른 대상과의 비교를 통해 파악된 결과로 다른 대상에 의존하는 방식이어서, 그 과정에서 개별 대상의 고유한 특성이 무시되기 때문이다. 또한 들뢰즈는 개념이 개별 대상들을 규정함으로써 개별 대상을 개념에 포섭시키는 상황이나, 개념에 맞추어 세상을 파악함으로써 세상을 오로지 개념의 틀에 가두는 상황을 우려했다. 왜냐하면 이와 같은 상황에서는 미리 정해 둔 개념에 부합하는 개별 대상은 좋은 것으로, 그렇지 못한 개별 대상은 나쁜 것으로 규정되는 **개념의 폭력**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들뢰즈는 개별 대상의 차이 자체를 드러낼 수 있는 작용 원리를 ‘반복’과 ‘강도’라는 용어로 설명했다. 일반적으로 반복은 같은 일을 되풀이한다는 의미로 쓰이지만 들뢰즈가 말하는 반복이란 되풀이하여 지각된 강도의 차이를 통해 개별 대상의 차이 자체를 발견해 나가는 과정을 의미한다. 이때 강도란 정량화하기 힘든, 개별 대상의 고유한 크기이자, 다른 것과 비교될 수 없는 개별 대상에 대한 감각적 경험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피아노로 같은 악보를 반복해서 연주한다고 할 때, 각각의 ㉡ 연주는 결코 동일할 수 없으므로 연주가 반복될수록 연주자와 관객 모두 연주마다의 서로 다른 강도를 느끼게 된다. 즉 각각의 연주는 차이 자체를 드러내게 되는 것이다. 이처럼 들뢰즈에게 차이 자체란 반복에 의해 경험하게 되는 강도의 차이를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인간은 의사소통을 위해 서로가 동일하게 인정할 수 있는 개념을 필요로 하며, 개념을 통해 형성되는 인간의 지식 체계가 세상을 변화시킨다는 점을 고려하면 개념은 인간에게 필수적인 것이다. 들뢰즈도 이와 같은 개념의 기능을 전면적

으로 부정한 것은 아니다. 다만 들뢰즈의 철학은, 개념을 최고의 가치로 숭상하면서 이 세상을 개념으로 온전히 규정하려는 기존 철학자들의 사상을 극복하고자 한 것이며 철학의 시선을 개념에서 현실 세계의 대상 자체로 돌리게 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지닌다.

*중차: 상위 개념에 속한 동일한 층위의 하위 개념들 중 어떤 하위 개념이 다른 하위 개념과 구별되는 요소.

34. 윗글의 내용 전개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기존의 관점을 비판한 특정 견해를 예를 들어 설명하고 그 의의를 밝히고 있다.
- ② 두 이론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분석하고 이를 절충한 새로운 이론을 소개하고 있다.
- ③ 특정 이론의 변천 과정을 설명하고 해당 이론의 발전 방향에 대해 예측하여 전망하고 있다.
- ④ 특정 견해의 특징을 드러낼 수 있는 역사적 사건을 언급하고 그 견해의 장단점을 비교하고 있다.
- ⑤ 특정 견해를 뒷받침하는 다른 견해를 제시하고 사회적 현상을 분석하여 두 견해의 유사점을 부각하고 있다.

35. 윗글을 바탕으로 ㉠~㉣을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과 달리 ㉡은 개념에 해당한다.
- ② ㉠과 달리 ㉢은 개별 대상에 해당한다.
- ③ ㉢과 달리 ㉣은 개별 대상에 해당한다.
- ④ ㉠과 ㉢은 모두 개별 대상에 해당한다.
- ⑤ ㉡과 ㉣은 모두 개념에 해당한다.

36. 개념의 폭력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개념에 개별 대상을 포섭시킴으로써 일어난다.
- ② 개념에 맞추어 세상을 보았을 때 생기는 문제이다.
- ③ 개별 대상이 지닌 고유한 특성만을 중요시할 때 나타난다.
- ④ 대상에 대한 보편적 관념만을 강조했을 때 발생할 수 있다.
- ⑤ 개별 대상이 개념과 일치하는지 여부에 따라 개별 대상의 가치가 결정되는 것이다.

37. <보기>는 온라인 수업 게시판의 일부이다. 윗글을 바탕으로 학생들이 과제를 수행했다고 할 때 ㉠과 ㉡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 보기 >

○ 과제: 다음 사례를 읽고 ㉠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댓글로 작성하시오.

한나는 냉면을 소개하는 책자를 보았다. 여기에서 함흥냉면과 평양냉면을 서로 비교하는 내용을 읽고 두 냉면의 면과 육수가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 한나는 두 냉면의 차이를 분명하게 알게 된 것이다.

한나는 냉면이 지닌 절대적 다름을 알게 된 것이군.

너는 ㉠을, (㉡)를 알게 된 것으로 여기고 있으므로 너의 의견은 들뢰즈의 견해에 (㉢)고 생각해.

- | | | |
|---|--------|----------|
| | ㉠ | ㉡ |
| ① | 차이 자체 | 부합한다 |
| ② | 차이 자체 | 부합하지 않는다 |
| ③ | 개념적 차이 | 부합한다 |
| ④ | 개념적 차이 | 부합하지 않는다 |
| ⑤ | 개념적 중차 | 부합한다 |

38. <보기>에 대해 '들뢰즈'가 보일 수 있는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기 >

○ 헤겔은 세상을 개념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방법론으로 변증법을 제시했다. 가령 '아인슈타인'이라는 개별 대상은 '남자', '과학자' 등과 같은 더 많은 개념들을 활용한다면 완벽하게 규정될 수 있다고 본 것이 헤겔 변증법의 핵심이다.

○ 앤디 워홀은 실크스크린을 통한 대량 인쇄 작업을 거쳐 공장에서 한 가지 상품의 동일한 이미지를 작품으로 제작하였다. 이 작품들은 언뜻 보면 동일해 보였지만 실제로는 윤곽선의 번짐이나 색상에서 조금씩 차이를 느낄 수 있었다. 이러한 앤디 워홀의 작업은 같음을 생산하는 과정을 되풀이함으로써 오히려 어떠한 결과물도 같을 수 없음을 보여 준다.

- ① 헤겔의 변증법을 활용하더라도 아인슈타인이라는 개별 대상을 온전히 규정할 수 없겠군.
- ② 헤겔이 세상을 보는 방법론은 미리 만들어진 개념이 현실 세계의 개별 대상들을 규정하는 것이겠군.
- ③ 앤디 워홀은 같음을 생산하는 과정을 되풀이하며 제작한 결과물을 통해 동일한 강도가 지각될 수 있음을 보여 주려 한 것이겠군.
- ④ 앤디 워홀이 대량 인쇄 작업으로 제작한 작품들은 다른 것과 비교될 수 없는 개별 대상에 대한 감각적 경험을 가능하게 하겠군.
- ⑤ 앤디 워홀의 실크스크린 작품들에서는 다른 대상에 의존하는 방식으로 파악할 수 없는 특성이 색상과 윤곽선에 대한 지각을 통해 드러나게 되는 것이겠군.

[39 ~ 4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먹을 사람들하 올흔 일 **헝자스라**
 사름이 되어 나서 올티곳 못흐면
 먹쇼를 갖 **곳갈** 쇠워 **밥** 머기나 다르랴

<제8수>

풀목 쥐시거든 **두 손으로 바티리라**
 나갈 데 겨시거든 막대 들고 ㉠ **조츠리라**
 향음츄 다 파흔 후에 뵈셔 가려 **헝노라**

<제9수>

오늘도 다 새거다 호의 메고 가자스라
내 논 다 매여든 **내 논** 점 매여 주마
 을 길에 뽕 따다가 누에 먹겨 보자스라

<제13수>

- 정철, 「훈민가」 -

(나)

일곱 되 사온 쌀 꾸어 온 쌀 두 되 갑고
 부족타 **헝지** 앓는 말이 뜻을 순하게 **헝오미라**
깨진 그릇 **종단** **말은 시가를 존중** **헝미라**
 날고 기는 개 달긴덜 어른 압해 감히 치며
 부인의 목소리를 문 밧게 감히 내며
 해가 저서 **황혼되니** **무탈과정*** 다행이요
 달기 우러 새벽 되던 오는 날을 엇지 할고
 전전공공 **조심** 마음 **시각을** **노홍손가**
 행여 혹시 눈 밖에 날가 **조심도** **무궁** **헝다**
 ㉠ **친정에 편지하여** **서러운** **스설** **불가** **헝다**
 시원치 아닌 달란 말이 한 번 두 번 아니여던
 번번이 었치 읍시 편지마다 **헝잔** **말가**
 ㉡ **빈궁(貧窮)**이 **내 팔츠니** **뉘** **탓을** **헝잔** **말가**
 설매를 보내어서 이웃집에 꾸러가니
 도라와서 **우년** **말이** **전에** **꾼** **쌀** **아니** **주고**
 ㉢ **엿치** **읍시** **또** **왔느냐** **두** **말** **말고** **바뻐** **가라**
한심 **헝다** **이** **내** **몸이** **금의옥식** **길너** **느서**
전곡(錢穀)을 모르다가 **일조(一朝)**에 **이을** **보니**
이복구비 **남** **갓트되** **엇지** **이리** **되얏** **넉고**
수족이 **건강** **헝니** **내** **힘써** **벌게** **되던**
 어느 뉘가 **시비** **헝리** **천한** **욕을** **면** **헝리** **라**
분한 **마음** **다시** **먹고** **치산법절*** **힘쓰** **리** **라**
김장 **즈** **이부** **즈가** **제** **근본** **부** **즈** **런가**
 ㉣ **밥** **낫** **으로** **힘써** **벌면** **난들** **아니** **부** **즈** **될가**
오색 **당스** **가는** **실을** **오리** **오리** **즈** **아** **내** **니**
유황 **제** **곤** **베** **틀** **에** **필** **필** **이** **즈** **아** **내** **어**
한 **뎡** **주** **셔** **관** **복** **감** **이** **며** **병** **스** **수** **스** **근** **복** **감** **이** **며**
 ㉤ **길** **쌈** **도** **헝** **려** **니** **와** **전** **답** **으** **더** **역** **농** **헝** **니**
때 **를** **맞** **춰** **힘** **써** **헝** **니** **가** **업** **이** **초** **정** **이** **라**
 (중략)

산에 가 **제** **스** **헝** **기** **절** **에** **가** **불** **공** **헝** **기**
불 **효** **부** **제*** **제** **살** **헝** **덜** **귀** **신** **인** **덜** **도** **와** **줄** **가**
악 **병** **이** **며** **중** **병** **이** **며** **이** **질** **이** **며** **구** **창** **이** **며**

이 **질** **앓** **던** **시아** **버** **지** **초** **상** **헝** **덜** **상** **관** **헝** **라**
저 **의** **심** **스** **그** **러** **헝** **니** **서** **방** **인** **덜** **운** **전** **할** **가**
아 **들** **죽** **고** **우** **년** **말** **이** **아** **기** **딸** **이** **마** **져** **죽** **어**
세 **간** **이** **탕** **진** **헝** **니** **노** **복** **인** **덜** **잇** **슬** **손** **가**
제 **스** **음** **식** **츠** **릴** **적** **에** **정** **성** **읍** **시** **헝** **였** **스** **니**
양 **화(殃禍)** **가** **엇** **지** **읍** **실** **손** **가** **셋** **째** **아** **들** **반** **신** **불** **수**
문 **전** **옥** **답** **큰** **농** **장** **이** **물** **난** **리** **에** **내** **가** **되** **고**
안 **팍** **기** **와** **수** **백** **간** **이** **불** **이** **붓** **터** **밧** **치** **되** **고**
태 **산** **갓** **치** **쌓** **인** **전** **곡** **뉘** **물** **건** **이** **되** **단** **말** **가**
츄 **혹** **헝** **다** **괴** **똥** **어** **미** **단** **독** **일** **신** **뿐** **이** **로** **다**
일 **간** **읍** **집** **으** **더** **드** **니** **기** **한(飢寒)** **을** **견** **딜** **손** **가**
다 **떠** **러** **진** **베** **치** **마** **를** **이** **웃** **집** **의** **으** **더** **입** **고**
뒤 **츄** **읍** **년** **흔** **집** **신** **을** **짜** **을** **모** **와** **으** **더** **신** **고**
압 **집** **에** **가** **밥** **을** ㉥ **빌** **고** **뒤** **집** **에** **가** **장** **을** **빌** **고**
초 **요** **기** **를** **겨** **우** **헝** **고** **불** **못** **때** **던** **찬** **읍** **집** **에**
헝 **거** **적** **을** **뒤** **여** **스** **고** **밤** **을** **겨** **우** **새** **여** **느** **서**
새 **벽** **바** **람** **찬** **바** **람** **에** **이** **집** **가** **며** **저** **집** **가** **며**
다 **리** **절** **고** **곰** **배** **팔** **에** **회** **회** **소** **리** **요** **란** **헝** **다**
불 **효** **악** **행** **헝** **던** **죄** **로** **양** **화** **를** **바** **더** **시** **니**
복 **선** **화** **음*** **헝** **년** **줄** **을** **이** **를** **보** **면** **분** **명** **헝** **다**
딸 **아** **딸** **아** **요** **내** **딸** **아** **시** **집** **스** **리** **조** **심** **헝** **라**
어 **미** **행** **실** **본** **을** **바** **다** **괴** **똥** **어** **미** **경** **계** **헝** **라**

- 작자 미상, 「복선화음록」 -

*무탈과정: 아무 탈 없이 하루를 보냄.
 *치산법절: 재산을 늘리는 일.
 *초성: 기반이 마련됨.
 *불효부제: 효도와 공경을 하지 않음.
 *복선화음: 착한 이에게 복을 주고 악한 이에게 재앙을 줌.

39. (가)와 (나)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청유형 어미를 활용하여 대상을 예찬하고 있다.
- ② 선경후정 방식을 활용하여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 ③ 고사성어를 활용하여 주제 의식을 강조하고 있다.
- ④ 유사한 통사 구조를 활용하여 운율을 형성하고 있다.
- ⑤ 계절의 순환을 활용하여 시적 의미를 부각하고 있다.

40. ㉠~㉤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자신의 서러운 처지를 친정에 알리기 어려워하고 있는 화자의 모습이 나타나 있다.
- ② ㉡: 가난의 원인을 타인의 잘못이 아닌 자신의 운명으로 돌리는 화자의 모습이 나타나 있다.
- ③ ㉢: 쌀을 꾸러 찾아간 이웃집에서 들은 말을 설매에게 하소연하는 화자의 모습이 나타나 있다.
- ④ ㉣: 자신도 김 장자와 이 부자처럼 부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화자의 모습이 나타나 있다.
- ⑤ ㉤: 재산을 늘리기 위해 열심히 일하는 화자의 모습이 나타나 있다.

41. ㉠와 ㉡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는 타인을 위한, ㉡는 자신을 위한 주체의 행위를 의미한다.
- ② ㉠는 절망감이 반영된, ㉡는 기대감이 반영된 주체의 행위를 의미한다.
- ③ ㉠는 단절을 초래하는, ㉡는 화합을 유도하는 주체의 행위를 의미한다.
- ④ ㉠는 자연에 순응하는, ㉡는 자연으로 도피하는 주체의 행위를 의미한다.
- ⑤ ㉠는 제기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는 해결된 문제의 원인을 찾기 위한 주체의 행위를 의미한다.

42. <보기>를 바탕으로 (가)와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조선 시대에는 옳은 일의 실천, 어른 공경, 상부상조, 부녀자의 덕목과 같은 가르침을 전달하고자 하는 작품들이 있었다. 이러한 작품들은 가르침의 전달 효과를 높이기 위해 비유 대상 혹은 화자와 대비되는 대상을 활용하고, 구체적인 청자를 제시했다. 또한 화자가 스스로 실천하려는 행위를 제시하는 방식을 활용하여 설득 효과를 높이기도 하였다.

- ① (가)에서 ‘갓 곳갓’을 쓰고 ‘밥’을 먹는 ‘므쇼’를 통해, 비유 대상으로 옳은 일의 실천을 강조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군.
- ② (나)에서 ‘이질 앓던 시아버지’를 도와주지 않는 ‘귀신’을 통해, 화자와 대비되는 대상으로 상부상조를 강조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군.
- ③ (가)의 ‘므을 사름들’에게 ‘올흔 일 흐자스라’라고 한 것과 (나)의 ‘딸’에게 ‘시집스리 조심흐라’라고 한 것을 통해, 구체적인 청자를 제시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군.
- ④ (가)의 ‘꽃목’을 ‘취시’면 ‘두 손으로 바티리라’는 것을 통해 어른에 대한 공경을, (나)의 ‘시가를 존중’하여 ‘깨진 그릇 좋단 말’을 한 것을 통해 부녀자의 덕목을 드러내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군.
- ⑤ (가)의 ‘내가 자신의 ‘눈’을 다 매거든 ‘네 눈’도 매어 준다’는 것과 (나)의 ‘수족이 건강’한 ‘내가 ‘힘써’ 벌겠다는 것을 통해, 화자가 스스로 실천하려는 행위를 제시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군.

[43 ~ 4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버들택은 들판과 바다를 왼쪽에 끼고 걸었다. 들판에는 거울 보리들이 파랬다. 바다에는 부연 먼지 같은 안개가 덮여 있었다. 그 우중충한 안개가 그녀의 마음속에도 끼어 있었다. 한숨을 쉬었다. 이 자식은 언제나 철이 들어 제 앞가림 [A]을 하고 살려는가. 죽기 전에 그놈 당당하게 사는 모습 보는 것이 소망인데 좀처럼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그 암담한 생각을 하자 다리가 팍팍해졌다. 후유, 하고 한숨을 쉬었다.

이날 용복은 방 안으로 들어오자마자, “출구면 불 조끔 떼제잉”하고 보일러의 센서를 오른쪽으로 틀 수 있는 테까지 틀어 놓았다. 화살표가 마지막 단계인 ‘연속’에 가 닿았다. 곧 보일러가 부르릉 소리를 내며 가동되었다. 버들택은 **아깝다고 밤에 잘 때 한 차례만 때**곤하는 기쁨을 용복은 집 안에 들어와 앉아 있는 **한 계속 때려고** 들었다. 그렇지만 버들택은 손자가 하는 일을 **말리지** 않았다. 보일러 돌아가는 소리를 들으며 용복은 이불을 덮고 드러누웠다. 버들택이 이렇게 **불편한 몸을 이끌고** 살아가는 것은 눈앞에 일선거리의 유일한 손자 용복 때문이었다. 용복은 그녀에게 있어서 **삶의 허기를 충족**시켜 주는 보물이었다.

늦둥이 아들 하나가 있었는데 막일을 하러 다니다가 싸움질을 하고는 교도소에 갔다. 두 해 뒤 겨울에 나와서 어디엔가 취직을 하고 요리 학원을 다닌다고 하더니 어느 날 잣난아기를 안고 나타났다. 앞으로 결혼할 미장원 처녀가 낳은 아기라는 것이었다. 잠시만 맡아 키워 주면 돈 벌어 결혼식 하고 살림 차린 다음 데려가겠다는 것이었다. 한테 아들은 아기를 맡기고 간 다음 중무소식이었다. 버들택은 그 아기를 우유도 먹이고 밥도 씹어 먹여 키웠다. 그 아이가 용복이었다.

한테 용복도 제 아비의 길을 가고 있었다. 농고를 졸업하고 자동차 정비 공장에 다니다더니 그것을 그만두고 식당 일을 한다고 했다. 이 자식도 싸움질을 하는지 가끔 눈두덩이 멍들거나 입술이 터진 채 밤 깊어 차를 몰고 찾아오곤 했다. 버들택은 손자의 다친 얼굴을 보면 가슴이 아리고 쓰리고 미어지는 듯싶었다. 끌어안고 손으로 만지고 멍든 자리를 불과 입술로 비벼 주었다.

“주인 양반이 시키는 대로 고분고분 일이나 할 일이지 누구하고 싸웠기에 이러냐?”

버들택이 애달은 소리로 말하자, 용복은 장차 국가 대표 선수가 되려고 도장에서 운동 연습을 한다고 했다.

“국가 대표가 몇 하는 것이라냐?”

“금메달만 몇 개 따면은 가만히 앉아 편히 먹고 사는 것이지잉.”

㉠ 버들택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후다!**” 하고 말했다. 그것은 새 각시 시절에 꼬부랑 시할머니가 쓰던 말이었다. 기대한 만큼 좋은 결과가 나타나지 않을지도 모른다고 생각은 되지만, 그래도 어찌할 수 없이 더러운 소망으로 기대하면서 지껄이는 말. ‘좋은 일에! 제발 그렇게만 좀 된다면 얼마나 얼마나 좋겠느냐’는 말이었다.

“그런디 얼굴은 어찌다가 그렇게 다쳤냐?”

할머니는 ㉡ **손자의 멍든 곳을 어투만지고 쓰다듬었다.** 아이고, 여기 다칠 때에 내 새끼 살이 얼마나 아팠을까. 가슴이 아리고 쓰렸다. 용복은 통명스럽게 말했다.

“연습하느라고 그런 것인데 염려 말고 얼른 이달 치 돈이나 내놓소.”

“지난달에 가져간 돈 다 썼냐?”

㉠ “삼십만 원 그것이 돈이란가?”

“이 사람아, 그것이 먼 소리냐?”

그 돈은 버들택이 번 돈이 아니었다. 면사무소에서 다달이 통장에 넣어 주는 무연고의 **독거노인에게 주는 생계비**였다. 버들택은 그 돈을 **한 푼도 쓰지 않고 모두** 놔두었다가 손자에게 주곤 하는 것이었다.

[중략 부분 줄거리] 사고를 친 용복 때문에 버들택은 돈을 꾸러 다닌다. 하지만 돈을 빌리지 못한 버들택은 결국 광주 양반을 찾아가는다.

버들택은 광주 양반을 향해 “광주 양반, 나 돈 삼십만 원만 조금 꼭시다. 열흘 뒤에 돈 나오면 주께” 하고 말했다. 수문택이 “아이고, 어질볼 앓는 사람이 엄뺑 하는 사람 보고 뺑 고쳐 주라고 하네. ㉡ **광주 양반도 시방 말이 천근만근이라요**” 하고 말했다. 그러자 교동택이 그 말을 받았다.

“부산 딸이 시방 많이 아프다요.”

초등학교를 마치자마자 공장에 다니겠다고 마산 공단으로 간 딸이었다. 처음에는 신발 공장에 다니다가 나중에는 버스 차장을 했다. 버스 회사들이 차장들을 해고시키자 함께 사는 남자하고 술집을 차렸다고 했다. 광주 양반은 그 딸에게 부채가 많았다. 결혼식도 치러 주지 못하고 혼수 한 가지 해 주지 못한 것이었다.

“돈 한 푼 못 벌고, **벌어 놓은 재산**이 있는 것도 아니고, 푹푹한 자식들이 있어 다달이 돈을 보내 주는 것도 아니고, 그래 장차 무슨 희망이 있는 것도 아닌디, **동네 사람들이** 불쌍하고 가련하다고 조금씩 보태 주는 **곡식이나 반찬 얻어먹고** 사는 것이 부끄럽고 구차하지도 않아서 그렇게 끈질기게 살고 있소?”

먼 일가의 조카뻘 되는 상근이 시제를 모시러 왔다가 술 열 근해진 김에 찾아와서 이 말을 하고 갔다는 소문이 난 적이 있었다. 그 말에 광주 양반은 얼굴을 붉힌 채 “글쎄 말이시이” 하고 얼버무렸다고 했다. 그러나 상근이 돌아간 다음 그는 “개자식, 지놈이 나한테 쌀 한 되박을 보태 주었다냐, 돈 백 원 짜리 한 개를 던져 주었다냐? ㉢ **지가 어쩐다고 부끄럽고 구차하지도 않아서 이렇게 끈질기게 살고 있느냐고 그래?** 내사 불불 기어 다니든지 바람벽에 똥을 바르고 살든지 집어 묵고 살든지 지놈이 아랑곳할 것이 무엇이여잉?” 하고 노여워했다는 말이 마을 안에 나돌아 다녔다.

방 안에는 침묵이 흘렀다. 수문택이 말했다.

“그 딸이 위암에 걸렸단 안 하요? 그런디 수술비가 없어서 수술을 못한다요. 그래서 광주 양반이 그동안 **모아 놓은 돈** 사백만 원을 **다 보내** 쥐뿌렸다요.”

“아이고, 그래서 어찌께라우잉? 그래도 광주 양반이 살아 있기 뻘세……. 아버지 노릇 참말로 잘 하셨구먼이라우. 아버지나 된게 그런 돈을 보태 주세 세상 어느 누가 깡전 한 푼 보태 준다요?”

이렇게 위로의 말을 하는 것이지만, 버들택의 마음은 벌써 절실 집으로 달려가고 있었다.

- 한승원, 「버들택」 -

43. [A]에 나타난 서술상의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구체적 자연물을 통해 인물의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
- ② 인물의 반복적 행위를 통해 성격의 변화를 암시하고 있다.
- ③ 요약적 진술을 통해 구체적인 시대 배경을 보여 주고 있다.
- ④ 과거의 회상을 통해 내적 갈등의 해소 과정을 서술하고 있다.
- ⑤ 현실과 환상의 교차를 통해 사건을 입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44.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버들택은 기대한 만큼 좋은 일이 있을 것이라 확신하고 있다.
- ② ㉡: 버들택은 상처 입은 용복을 가엾게 여기며 마음 아파하고 있다.
- ③ ㉢: 용복은 버들택이 주었던 돈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있다.
- ④ ㉣: 수문택은 광주 양반의 마음이 힘들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
- ⑤ ㉤: 광주 양반은 자신의 처지에 참견하는 상근의 말에 분노하고 있다.

45.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이 작품은 빈곤, 고립된 생활 환경, 젊은이의 무관심으로 인한 노인 계층의 소외된 삶과 피붙이에 대한 조건 없는 희생과 내리사랑을 서사의 중심에 두고 있다. 특히 쇠약한 몸과 경제적 궁핍 속에서도 손자를 삶의 희망으로 여기는 인물을 통해 노인 계층이 직면한 삶의 문제에 대한 주제 의식을 드러내고 있다.

- ① 버들택이 ‘아깝다고 밤에 잘 때 한 차례만 때’는 기쁨을 용복이 ‘계속 때려고 들어도 ‘말리지 않’는 것에서 피붙이에 대한 내리사랑을 짐작할 수 있겠군.
- ② 버들택이 ‘불편한 몸을 이끌고 살아가’면서 용복을 통해 ‘삶의 허기를 충족’하는 것에서 쇠약한 노인이 손자에게 삶의 희망을 얻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겠군.
- ③ 버들택이 ‘독거노인에게 주는 생계비’를 ‘한 푼도 쓰지 않고 모두’ 손자에게 주는 것에서 조건 없는 희생을 구현하고 있는 소외된 노인의 모습을 짐작할 수 있겠군.
- ④ 광주 양반이 ‘벌어 놓은 재산’도 없이 ‘동네 사람들’에게 ‘곡식이나 반찬 얻어먹고’ 산다고 상근이 말한 것에서 노인 계층의 빈곤 문제를 짐작할 수 있겠군.
- ⑤ 광주 양반이 ‘모아 놓은 돈’을 딸에게 ‘다 보내’서 수술을 하지 못한다고 수문택이 말한 것에서 노인의 경제적 궁핍에 대한 젊은이의 무관심을 짐작할 수 있겠군.

※ 확인 사항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하십시오.